

2022-CR-03

작은연구 좋은서울 22-09

가족 돌봄 청년의 일상생활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선미정



가족 돌봄 청년의 일상생활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연구책임

선미정 송의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mjseon1004@gmail.com

연구진

장정은 이화사회과학원 연구원
jje117@gmail.com
김진영 머릴랜드 주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후연구원
kjj7260@hotmail.com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목차

01.연구개요	1
1_연구 배경 및 목적	1
2_선행연구 고찰	3
02.연구방법	12
1_질적 사례연구	12
2_연구참여자 및 자료수집	13
3_분석방법	14
4_연구의 엄격성과 윤리적 고려	14
03.연구결과	16
1_사례 내 분석	16
2_사례 간 분석	27
04. 논의 및 결론	59
1_논의 및 결론	59
참고문헌	73

표 목차

[표 1] 국가별 영 케어러(또는 가족 돌봄 청년)의 정의	4
[표 2] 연구참여자 특성	13
[표 3] 사례1 일상생활 시간 사용	16
[표 4] 사례2 일상생활 시간 사용	18
[표 5] 사례3 일상생활 시간 사용	21
[표 6] 사례4 일상생활 시간 사용	23
[표 7] 사례5 일상생활 시간 사용	25
[표 8] 연구참여자의 일상생활 경험에 대한 구성요소	27
[표 9] 사례별 생활시간	64
[표 10] 사례별 서비스 지원 욕구	65
[표 11] 성인, 대학생, 영 케어러 일상생활 시간 단순비교	66

01. 연구개요

1_연구 배경 및 목적

인간의 생애 주기상 우리는 어느 시점에는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고, 또 누군가를 돌보게 되는 상황에 맞닥뜨린다. 그중에서 청년의 시기는 아동기와 성인기의 중간으로 학교 교육의 종료, 취업, 결혼과 출산을 통해 가족과 부모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독립하고 새로운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김정은, 박정윤, 문의정, 2019). 그러나 2021년 11월, 대구 22세의 젊은 청년의 생활고와 존속살인이라는 간병 돌봄 관련 사건은 우리 사회에 가족 및 부모에게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를 돌보는 가장(家長) 역할의 주체인 동시에 자신의 다음 생애주기 성장을 준비해야 하는 청년들의 삶과 돌봄 한계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할 중요한 화두를 던졌다(김향미, 2021). 이처럼 “질병, 장애, 정신건강,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 구성원을 직접 돌보는 아동·청소년”을 우리는 “영 케어러(Young Carer) 또는 가족 돌봄 청년”이라고 지칭하고 있다(허민숙, 2022). 그러나 ‘영 케어러’의 정의와 범주는 아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바가 없으며(허민숙, 2022), 국가별로도 이를 조금씩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한국 역시, 국내 실정에 맞게 영 케어러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과거보다 현재 청년 세대는 남녀가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가사 및 가족 돌봄 시간이 지속해서 낮아지는 추세로(서지원, 기은광, 고선강, 2021) 청년 개인 생활에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 시기의 생애주기 내 과업인 자신의 독립과 자기계발 성장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다수의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2~4%의 영 케어러들이 가족을 돌봄에 시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Leu & Becker, 2019). 이처럼 우리 사회의 일부 청년들은 가족 돌봄의 최전선에서 보호자의 역할로 자신을 돌보거나 자신의 일상생활, 미래를 준비할 여건이 되지 않기도 한다.

특히, 가정위탁 아동은 영 케어러로서의 삶으로 인해 개인의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김연정, 정선영, 2022). 김연정과 정선영(2022)은 가정위탁 아동들이 가족 또는 위탁 가족을 떠나 완전한 자립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을 발견하였다. 자립에 대한 준비도가 낮은 이유도 있었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는 친인척 또는 조부모를 두고 갈 수 없는 상황 또는 질병 또는 사고를 당한 가족 구성원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많은 참여자에게서 발견되었다. 이는 비단 가정위탁 아동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영 케어러들이 심리적으로도 가족 구성원들을 돌봐야 한다는 부담감을 마주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제한된 교육 기회 및 구직의 어려움,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제약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영 케어러들은 대학 교육에서 요구하는 바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사회적 지지의 감소를 경험하고, 낙인으로 인해 은둔 또는 사회적 위축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되고 있다(Joseph, Sempik, Leu, & Becker, 2020).

어린 나이에 부모를 돌보고 가장의 역할을 하느라 자기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가족 돌봄 청년(영 케어러, Young Carer)들과 일반 청년들 간의 일상생활과 시간 활용은 현저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유추된다. 일상생활이란 반복적이고 단순하며 사소한 일들로 가족, 이웃, 학교, 직장 등과의 직접 대면에서부터 소셜 미디어를 통한 간접 활동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형성되는 것을 일컬으며, 이는 생존과 변화를 가능케 하는 다양한 실천들로 구성된다(김왕배, 1999). 따라서 개인이 어떻게 하루의 시간을 보내고, 그 시간 속에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는 한 개인의 독특한 삶을 반영하고, 이는 개인의 행복이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이수진, 정익중, 2020). 즉, 일상생활 구조를 통해 개인의 일과 학업, 여가, 사회적 관계 등에 관한 전반적인 생활세계를 탐색할 수 있게 된다.

일상생활은 하루 24시간 생활시간 사용이 매일 습관화되어 되풀이되고 당연시되는 자료들이지만 개인 주체들의 사고방식, 규칙, 관계 맺음, 사회성까지도 내포하고 있어(채화영, 김주희, 이기영, 2011), 개인의 삶과 질과 행태를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도 국민 생활시간 조사를 통해 개인의 하루(24시간)를 시간일지를 통해 파악하고, 이를 생활 균형, 복지, 문화, 교통 등의 정책 자료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통계청, 2019). 예를 들어 양민아, 원경아, 박지혁(2020)이 생활시간 사용에 따라 연령 및 지역별로 생활방식 유형을 구분하였는데, 그 결과 시간 사용 유형에 따라 합리적 생활 추구형, 성취 추구형, 소극적 현실 즉시형으로 구분되었다. 비록 해당 연구는 영 케어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지만, 불시에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청년들 역

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고, 이들의 24시간 생활시간 사용은 돌봄에 집중되거나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활동에 시간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일반적인 청년들의 시간 사용이나 과업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유추되며, 이는 개인의 삶의 질이나 만족도, 행복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가족 돌봄 청년(영 케어러, Young Carer)의 생활시간 사용 분석을 통해 나타난 주요 행동은 이들의 전반적 욕구가 반영된 결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주변 환경이나 타인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영향을 받게 되는지, 이것이 개인과 가족 돌봄, 삶에 대해 어떠한 인식과 태도, 가치를 형성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 케어러의 일상생활을 시간 사용의 맥락을 통해 구조화하고 개인과 가족 돌봄 간 시간 사용의 양상, 어려움, 필요 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구체적인 연구 문제로 제시하면 첫째, 가족 돌봄 청년(영 케어러, Young Carer)이 된 배경과 상황은 어떠한가? 둘째, 가족 돌봄 청년(영 케어러, Young Carer)의 돌봄 경험과 시간 사용에 따른 일상생활은 어떠한가? 셋째, 가족 돌봄 청년(영 케어러, Young Carer)의 당면 어려움과 필요는 무엇인가? 종합하면, 본 연구는 영 케어러(Young Carer)의 경험들을 재조명하여 개인과 가족의 돌봄을 넘어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복지 실천 및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2_선행연구 고찰

1) 가족 돌봄 청년(영 케어러, Young Carer)의 개념적 정의

국가별 영 케어러에 대한 정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캐나다는 “25세 이하의 젊은 청년 중 그들의 가족 구성원의 만성 질환, 장애, 정신건강 또는 물질 사용 문제, 노화에 따른 문제로 인해 상당한 시간을 무보수 돌봄을 제공하는 자”를 영 케어러로 정의하고 있다(Stamatopoulos, 2016). 이와 비슷하게, 호주 역시 영 케어러를 “25세까지의 사람 중 장애, 정신질환, 만성 질환, 음주 또는 약물 문제, 나이가 든 가정 구성원 또는 친구에게 무보수의 돌봄과 지지를 제공하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다(Carers Australia, 2022). 캐나다와 호주 모두 영 케어러의 연령을 25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 만성 질환, 음주 또는 약물 문제, 노화”를 가진 가족 구성원에게 무보수로 돌봄을 제공하는 자를

영 케어러라고 공통으로 설명하고 있다(Carers Australia, 2022; Stamatopoulos, 2016). 그러나 호주는 가족 구성원뿐만 아니라 친구에 대한 돌봄도 포함하고 있다(Carers Australia, 2022).

영국은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 구성원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캐나다와 호주와 비슷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이나, 영 케어러의 연령 기준을 18세 이하로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Medforth, 2022). 또한, 영국에서는 영 케어러를 돌봄의 책임으로 인해 삶의 일부분이 ‘제한’된 사람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Heyman & Heyman, 2013). 이 외에도 타 선행연구에서는 영 케어러를 보통 18세 이하 또는 8~25세의 장애, 정신 및 신체 질병, 약물 등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젊은이로 일컫는 것으로 확인된다(Hendricks, Kavanaugh, & Bakitas, 2021; Robison, Inglis, & Egan, 2020). 그에 반해 한국은 비교적 영 케어러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므로, 명확하게 연령의 범위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돌봄을 받는 가족 구성원의 상태에 대해서도 다소 광범위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영 케어러 지원대책 수립방안(2022)에서도 영 케어러에 대한 법적 정의, 현황, 범위, 지원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구체화하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와 다체계적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국무조정실, 2022).

그러나 국무조정실(2022)의 가족 돌봄 청년 지원대책 수립방안에서 가족 돌봄 청년을 13세부터 34세 이하로 지정하고 조사한 바와 「청년기본법(2020)」에서 제시한 ‘청년’의 기준이 19세 이상 34세 이하라는 점을 적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 영 케어러 또는 가족 돌봄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중 무보수로 가족 구성원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자는 위의 연령 기준에 해당하며 미혼인 가족 돌봄 청년이다.

[표 1] 국가별 영 케어러(또는 가족 돌봄 청년)의 정의

국가명	정의
한국 ¹⁾	장애, 질병,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
캐나다 ²⁾	25세 이하의 젊은 청년 중 그들의 가족 구성원의 만성 질환, 장애, 정신건강 또는 물질 사용 문제, 노화에 따른 문제로 인해 상당한 시간 무보수 돌봄을 제공하는 자

1) 보건복지부. (2022). 가족을 돌보는 청년, 국가가 함께 돌보겠습니다. Retrieved April 12, 2022, from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70196

2) Stamatopoulos, V. (2016). Supporting young carers: A qualitative review of young carer services in Canada. *International Journal of Adolescence and Youth*, 21(2), 178-194.

국가명	정의
영국 ³⁾	18세 미만의 사람 중 타인(연령에 상관없이)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자 (※ 그러나 비용이 지급되거나, 계약상에 의해서 진행되거나, 봉사활동으로 제공되는 돌봄은 제외되며, 여기서 돌봄은 장애, 만성 질환, 또는 음주 및 약물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 구성원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뜻함)
호주 ⁴⁾	25세까지의 사람 중 장애, 정신질환, 만성 질환, 음주 또는 약물 문제, 나이가 든 가정 구성원 또는 친구에게 무보수의 돌봄과 지지를 제공하는 자

2) 국내외 가족 돌봄 청년(영 케어러) 연구 동향

국내의 가족 돌봄 청년(영 케어러, Young Carer)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서야 관심을 받기 시작했으므로 국외 연구보다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깊이와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허민숙, 2022). 일반적으로 영 케어러와 관련된 연구는 가정위탁 아동이나 한 부모 가정 자녀에 관한 연구에서 부수적으로 언급되었을 뿐 영 케어러 자체에 초점을 둔 연구는 부족하였다(김연정, 정선영, 2022; 송혜원, 이예진, 이은형, 최하영, 2021). 예를 들어, 가정위탁 아동의 자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 구성원의 경제적 능력 보유 여부였다(김연정, 정선영, 2022). 또한, 한부모 가정의 자녀도 자립 과정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였는데 이는 양육자인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아픈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주체가 ‘자신’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송혜원 외, 2021). 이들은 독립/자립을 갈망하면서도 가족들을 돌보지 않는 상황에 대해 큰 죄책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송혜원 외, 2021). 이처럼 가족 구성원에 대한 돌봄 참여시간이 늘어난다면 반대로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은 작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 빈곤을 경험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예를 들어, 함선유(2017)는 주당 40시간 이상의 돌봄 참여가 노동 공급을 4~7%가량 감소시킬 위험이 있으며, 여성보다는 남성이 이로 인해 노동시장을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했다. 일반적으로 영 케어러들은 가족 구성원을 돌봐야 하는 책임 때문에 인생에 대한 경험이

³⁾ Medforth, N. (2022). "Our unified voice to implement change and advance the view of young carers and young adult carers." An appreciative evaluation of the impact of a national young carer health champions programme. *Social Work in Public Health*, Advance online publication. <https://doi.org/10.1080/19371918.2022.2058673>

⁴⁾ Carers Australia. (2022). *Young carers*. Retrieved April 12, 2022, from <https://www.carersaustralia.com.au/about-carers/young-carers/>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한정적인 경우가 많아 추후 교육, 직장, 사회생활 등의 측면에서 여러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으로 확인된다(Heyman & Heyman, 2013).

먼저 개인 내적 측면에서 영 케어러들은 장기간 가족 돌봄에 노출되고 혼자만의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돌봄 대상자에 대한 분노나 실망감을 경험할 수 있고, 이러한 감정들이 쌓여 가족에 대한 중압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Stamatopoulos, 2018). 특히, 많은 영 케어러들은 돌봄의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을 선호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무 제약 없이 할 수 있는 드라이브, 커피 타임, 운동 등의 모든 활동이 이들의 일상 속에서는 어려운 일인 것으로 나타났다(McDougall, O'Connor, & Howell, 2018). 그러나 가족 내에서의 돌봄 책임은 영 케어러에게 규범적 의무이자 책임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돌봄의 행위 자체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임무로 간주된다(Smyth, Blaxland, & Cass, 2011). 즉, 내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이를 본인의 삶의 일부로 규정하면서 영 케어러로서의 책무를 쉽사리 저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고용 측면에서, 영 케어러들은 많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참여해야 하고, 실시간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과 함께 살고 있으므로 정규적인 고용형태를 유지할 수 없고, 심지어 시간제로도 고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Stamatopoulos, 2018). 일부는 부모에 대한 돌봄의 책임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잃기도 한다고 보고했다(McDougall et al., 2018). 영국 영 케어러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영 케어러 중 절반 정도는 미 고용 상태이거나, 직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근 시간이 길지 않아 돌봄을 지속할 수 있는 곳 또는 근무 시간의 유연성이 보장되는 곳을 선택하게 된다고 보고했다(Sempik & Becker, 2014). 그러나 직장을 계속 다닌다고 해도, 시간이 많이 지체될수록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에 대한 걱정이 커져서 일에 집중하는 것이 힘들다고 설명하고 있다(Newman et al., 2022). 돌봄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 영 케어러들은 종종 결근하거나, 지각 및 조퇴 등의 근태의 문제를 보이게 되는데 대략 1년에 17일을 결근, 79일을 지각 및 조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Sempik & Becker, 2014).

교육적 측면에서는, 수면시간의 부족, 집중도 부족, 결석, 과제를 할 시간적 여유 없음 등의 요인들로 인해 학업을 지속할 수 없거나 학업에 대한 욕구를 충분히 충족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McDougall et al., 2018; Stamatopoulos, 2018). 특히, 캐나다의 경우, 10.8%의 결석 비율이 돌봄 관련 문제로 인해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Stamatopoulos, 2018), 영국의 영 케어러들의 54%는 돌봄의 역할이 없다면 학교에서 더 좋은 성적을 받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Sempik & Becker, 2014). 또한, 방과 후 활동 등에 주기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점으로 인해 또래 친구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

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사회적 장애를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Fives, Kennan, Canavan, & Brady, 2013; Stamatopoulos, 2018). 대학 진학 이후에도 29%가량이 돌봄 문제로 인해 대학교를 그만두었다고 보고하면서, 가족의 돌봄과 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Sempik & Becker, 2014).

이처럼 영 케어러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작용하는 보호 요인은 크게 자아효능감, 사회적 지지, 학교와의 연결성으로 나타났다(Gough & Gulliford, 2020). 사회적 지지의 주체는 형제자매, 친인척, 또래, 지역사회 내 돌봄 지지 서비스 제공자였다(Gough & Gulliford, 2020; Smyth et al., 2011). 그러나 동시에 영 케어러라고 스스로를 밝히는 것을 꺼리는 사례도 있으므로, 모든 유형의 돌봄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의 접근방법을 취하여 진입장벽을 낮추거나 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영 케어러를 발굴하고 서비스와의 연계를 모색하는 방법이 적극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겠다(Smyth et al., 2011).

그러나 영 케어러의 삶에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Stamatopoulos(2018)의 연구에서는 영 케어러들의 돌봄에 대한 긍정적 결과물로 성숙, 공감, 가족 유대관계의 강화를 제시하였다. Fives et al. (2013) 역시 또래보다 성숙한 영 케어러가 사회적 민감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영 케어러로서의 경험에 있는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들보다 삶의 긍정적인 점을 찾아내는 성향이 더 높고(Wepf, Joseph, & Leu, 2021), 자신들이 습득한 돌봄의 능력이 추후 다른 상황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McDougall et al., 2018).

3) 국내외 가족 돌봄 청년(영 케어러, Young Carer) 돌봄 정책

아직 국내에서는 영 케어러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정책 제반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나, 2022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족 돌봄 청년(영 케어러, Young Carer) 지원대책 수립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본 방안의 정책 골자는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로 제도적 정의 마련, 전국 규모 실태 파악, 기존 제도 연계와 신규제도 발굴, 법적 근거마련, 사회적 인지도 확산에 관한 내용이다(국무조정실, 2022). 현재 서대문구청이 보건복지부와 연계하여 가족 돌봄 청년지원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https://www.sdm.go.kr>), 서울시 청년 활동 지원센터에서 생활 안정지원사업 영 케어링 서비스(<https://sygc.kr>), 서서울 생명의 전화의 청년 프로젝트 영 케어러 바로서기 사업으로 심리·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http://happyliife.or.kr>). 국내 영 케어러

돌봄 정책은 초기 단계로 성과공유에 대한 부분은 아직 확인할 수 없고, 정책적 내용이 준비단계라 할 수 있다.

이에 해외의 사례를 참고하여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먼저, 영국은 「아동 및 가족법(2014)」(The Children and Families Act, 2014)과 「돌봄법(2014)」(Carer Act, 2014)에 근거하여 아동과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 과도한 또는 부적절한 돌봄이 가지 않도록 평가 및 지원하고 있다(The Children's Society, 2022). 또한, 영 케어러의 성인기 전환점을 보다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돌봄 실행전략(Carer Action Plan)'을 도입하였다(The Children's Society, 2022). 「아동 및 가족법(2014)」에 따라, 영국 정부는 영 케어러들이 도움이 필요로 하여 먼저 찾아올 때뿐만 아니라 '영 케어러 욕구 조사(Young Carer's Needs Assessment)'를 통해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파악하고자 한다(허민숙, 2022; Department of Education, 2014). 사회복지사는 영 케어러에 대한 교육수준, 직업훈련, 여가 기회, 미래에 대한 견해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어떤 도움이 제공되어야 할지를 결정한다(Department of Education, 2014; National Health Services, 2021a).

제공되는 도움으로는 돌봄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만약 돌봄 제공자가 만 16세 또는 그 이상이지만 전일제로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경우, 직장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가족의 재정을 돕는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다(허민숙, 2022; Department of Education, 2014; National Health Services, 2021a). 재정적 지원으로는 돌봄 수당(Carer's Allowance)이 있으며, 일주일에 35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한다면 주당 67.25파운드를 지원받게 된다(National Health Services, 2021a). 그 외에도 돌봄 크레딧(Carer's Credit; 주 2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지만 돌봄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돌봄 프리미엄(Carer Premium; 수입 지원 또는 주거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장애아동 거주 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 for Children;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일주일에 23.60~151.40파운드 지원)과 같은 지원금이 존재한다(National Health Services, 2021b). 또한, 돌봄과 관련한 이슈가 발생할 시, 조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돌봄 다이렉트 헬프라인(Carers Direct Helpline)'을 운영하고 있으며, The Children's Society, Carers UK, Youth Access 등의 단체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National Health Services, 2021a).

호주 정부의 경우, Carer Gateway라는 정부 주관 돌봄 제공자를 위한 무료 서비스 및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영 케어러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면 또는 온라인 동료지지 집단, 지원 패키지(예. 대중교통 서비스), 대면 또는 전화 상담, 대면 또는 온라인

자기 주도 코칭, 온라인 교육, 긴급 휴식 제공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된다(Carer Gateway, 2022). 또한, 호주 정부는 영 케어러들의 학비 보조금 프로그램(Young Carer Bursary Program)을 도입하여 이들의 교육과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있다(Carers Australia, 2022). 금전적 지원과 관련한 정보나 그 외 유용한 정보들은 Young Carers Network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허민숙, 2022). 만약 전일제 학생 또는 수련 과정에 있는 자가 영 케어러라면 청년수당(Youth Allowance), 돌봄수당(Carer Allowance), 연금수급자 교육 보조금(Pensioner Education Supplement), 학비 보조금(Bursary)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Young Carers Network, 2022). 돌봄 대상자가 심각한 장애, 질병 또는 노환일 경우에는 돌봄 임금(Carer Payment)과 돌봄수당(Carer Allowance)을 신청할 수 있다(Young Carers Network, 2022).

4) 가족 돌봄 청년(영 케어러, Young Carer)과 생활시간 연구

일상생활이란 평소 개인의 반복적이거나 유사한 행동으로 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을 의미하며, 어디에서(Location), 어떤 활동을(Activity), 누구와(Companion) 함께하는지에 관한 외적 경험을 통하여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는지에 대하여 내적 경험으로 이해될 수 있다(Csikszentmihalyi & Larson, 1984). 일상생활의 외적 경험은 개인을 둘러싼 물리적 · 사회적 환경에서 조성된 상태나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으며, 내적 경험은 외적 경험에서부터 형성되는 삶의 질로써 개인의 삶에 대한 인지와 감정을 포괄하는 정서와 관련된다(김윤지, 김정섭, 2022). 다시 정리하면, 24시간이라는 시간 사용 속 일상생활에 대한 외적 및 내적 경험을 통해 일상생활에 관한 내용과 정서, 삶의 질에 대하여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청년기의 핵심적인 사회적 과업은 보통 교육자격의 획득, 직업 탐색과 진로 결정, 노동 시장 진입과 정착, 경제적 및 물리적 독립, 결혼 준비와 새로운 가족의 형성, 자녀 출산과 양육 등이라 할 수 있다(변금선, 이혜림, 2022). 그러나 가족 돌봄이라는 부분이 청년들의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이들의 사회적 과업 이행에 필요한 절대적 시간이 부족함으로 과업달성에 상대적으로 지연되거나 탈표준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영 케어러와 유사 연령대의 일반 청년들과의 시간 사용 패턴을 비교해봄으로써 돌봄 청년들의 삶의 모습과 양상, 필요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통계청(2019)의 생활시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대 평균적 시간 사용은 수면 8:27분, 식사 및 간식 1:46분, 건강 및 개인위생, 외모 관리 등 개인 유지 시간 1:30분, 필수시간 총 11:42분을 사용하고, 일(구직활동 포함) 3:22분, 학습 1:42분, 가사노동 1:00분, 이동 1:43분, 의무시간으로 7:47분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여가로 교제 및 문화, 미디어, 스포츠 활동에 4:30분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9). 이는 20대의 남녀 모두를 평균화하여 조사된 결과이며 학업 또는 취업 여부가 구분되지 않은 조사 결과라는 점이 다소 제한적이지만, 20대 청년들의 평균 시간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송혜림, 강은주, 김민주(2021)의 청년 1인 가구의 생활 시간 사용에 관한 연구도 위의 결과와 유사한 패턴으로 생활 필수활동 시간이 11:30분, 가사 활동 시간 1:00분, 여가활동 시간 4:45분으로 보고되었다. 위 두 가지 보고를 종합하자면 오늘날 청년들은 생활시간을 수면 등 기본 필수활동 시간으로 약 12시간 이내를 사용하고, 학업이나 일로 약 6시간 이내, 여가활동 시간 약 5시간 이내, 가사 활동 시간 약 1시간 정도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영 케어러의 생활시간을 연구한 사례는 많지 않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한국 여성의 가족 돌봄 시간은 35.9분/일, 남성의 경우 9.6분/일로 나타난다(서지원, 기은광, 고선강, 2021). 이를 세대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는, 청년 세대 중 여성의 가족 돌봄 시간은 77.6분/일, 남성의 가족 돌봄 시간은 14.6분/일로 확인되며,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지만 1999년대와 비교하였을 때 여성의 가족 돌봄의 참여율은 감소하였고, 남성은 증가하였다(서지원 외, 2021). 그러나 위 연구는 청년들의 가족 돌봄 참여시간을 단순히 성별로만 나누어 살펴보았으므로 청년 집단 내에서의 차이를 파악할 수는 없었고, 가사노동 시간과 가족 돌봄 시간 외의 일상생활 시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일상생활 시간에 대한 연구 중 시간빈곤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데, 시간빈곤이란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인 활동에 지나친 시간을 사용하여 삶의 질, 인간다운 삶을 형성하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여가와 휴식을 누릴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거나 개인 자신을 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Bardasi & Wodon, 2006). 이는 시간 할당에 있어 시장 노동 현장에 종사하는 경우 생산 노동에 대한 과부하 상태거나 비시장 노동 현장에서는 가사나 돌봄 시간에 지나치게 치우쳐 시간빈곤을 경험하게 된다. 더하여 시간을 실제 통제할 능력을 갖추었는지, 자신 스스로의 시간을 어떻게 분배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는지에 따라 시간빈곤 경험이 달라질 수 있다(노혜진, 2017). 이처럼 시간 자기결정권이라는 맥락에서 시간빈곤을 정의한 차원에서 일반 청년과 가족

돌봄 청년은 필수적 시간을 재량껏 활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분명 다양한 모색을 시도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외 연구에서는 중국 및 멕시코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유럽 출신 청소년들과 비교했을 때,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 더 많은 시간을 가족을 돕거나 챙기는데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elzer & Fuligni, 2009). 또한, 종단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청소년들이 가족을 돕는데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할수록 학교 성적은 점차 하락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elzer & Fuligni, 2009). 즉, 해당 연구는 일상생활 시간 중에서도 가족을 돕는 시간이 늘어나면 학업 성적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보고하였지만, 해당 연구에서 가족 돌봄이란 청소년 한 명이 가족 구성원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형태는 아니며, 실제로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이 영 케어러는 아니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02. 연구방법

1_질적 사례연구

사례연구는 시간 경과에 따라 하나의 사례 또는 여러 사례를 탐색하며, 상세하고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사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질적 연구방법이다(Creswell, 2015). 사례가 갖는 복잡성과 의미를 이해하고 변화과정을 살펴볼 때 유용하다(유기웅, 2017). 특히, 본질적 사례는 사례 자체가 독특하여 그 자체로 연구될 필요가 있는 사례이다(김인숙, 2016). 이는 연구설계의 초점이 사례 그 자체에 맞춰지는데, 이를 통해 사례가 비일상적이거나 독특한 상황을 보여줄 수 있다(Creswell, 2015). 사례연구는 특별한 사례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특정 시간과 장소와 같이 일정한 한도 내에 경계를 가진 사례를 정의한다(Creswell, 2015). 본 연구에서의 사례는 청년기의 연령에 어떠한 형태로 가족의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가족 돌봄 청년(영 케어러, Young Carer)이다. 현재 영 케어러에 대한 기초조사가 미미한 상태이며 이들의 일상생활을 이해하고자 시도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의 양과 영역 구분으로만 측정할 수 없는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시간의 맥락에서 이들의 삶을 탐구하고자 한다. 또한, 영 케어러의 일상생활에서 시간 사용이 개인과 가족 돌봄의 간극을 어떻게 메우고 있으며, 시간 사용의 동기와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 케어러의 일상생활을 시간 사용의 맥락에 따라 이해하고자 본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2_연구참여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참여자는「청년기본법(2020)」에서 제시한 ‘청년’의 기준이 19세 이상 34세 이하라는 점을 적용하여, 국내 가족 돌봄 청년 또는 영 케어러를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중 무보수로 가족 구성원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였으며, 다음에 해당하는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다: 1)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성인 또는 청년, 2) 서울 또는 경기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자, 3) 무보수로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자, 4) 돌봄의 대상자가 가족 구성원인자. 이에 최종 연구참여자는 5명으로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연구참여자 특성

사례	성별	나이	직업	경제활동	근무형태	가족 (비동거 X)	돌봄 대상 (동거 O, 비동거X)
1	여	22세	대학생	식당/ 편의점	시간제 아르바이트	할머니, 아버지, 오빠(X)	친할머니, 89세 (X) 아버지, 69세 (X)
2	여	23세	미용사	미용실	프리랜서	어머니, 오빠(X)	어머니, 56세 (O)
3	여	23세	대학생	과외	(비)대면	부모님, 외할머니	외할머니, 70대 중반(O)
4	여	29세	박사 준비생	파트타임 상담사	대면	할머니, 아버지, 언니	친할머니, 88세(O)
5	여	25세	대학생	사무직/ 학원 강사	재택/내근	부모님, 동생 3명	막냇동생, 8세 (O)

연구참여자 모집은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에 의해 모집되었다. 인터뷰 참여자의 모집을 위해 수도권 소재 대학과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자 모집 공고문을 전달 및 게시하였고, 수도권 내 지역아동센터를 졸업한 사후관리 아동을 추천받았다. 자발적으로 인터뷰에 참여하고자 한 이들 중 연구목적에 부합한 대상자를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5명의 연구참여자가 모집되었다.

연구참여자의 자료수집 순서는 1) 1차 심층 면접, 2) 시간 사용일지 작성, 3) 2차 심층 면접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반구조화된 인터뷰 질문지를 작성하여 1:1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질문하였다. 이후 시간 사용일지 양식 작성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일주일간 작성할 것을 요청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일주일간

시간 사용일지를 작성하고 이후 2차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고, 2차 심층 면접에서는 연구 참여자가 작성한 시간 사용일지를 토대로 시간 사용의 맥락을 질문하였다.

3_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질적 사례연구에서 활용하는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을 실시하였다(Creswell, 2013). 사례 내 분석에서는 그 사례가 갖는 독특한 경험을 개별사례의 정황과 맥락에 따라 분석하였다. 먼저 참여자의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돌봄, 일과 학업에 관한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시간 사용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시간 사용은 수면, 일 또는 공부, 자기관리, 가사노동, 돌봄으로 구분하여 일상생활의 패턴을 탐색하였다. 사례 간 분석에서는 개별사례에서 발견된 주요한 의미 중 공통점을 추출하여 90개의 의미 단위를 도출하였다. 90개의 의미 단위는 다시 구조적으로 통합되어, 20개의 하위 구성요소와 최종적으로는 5개의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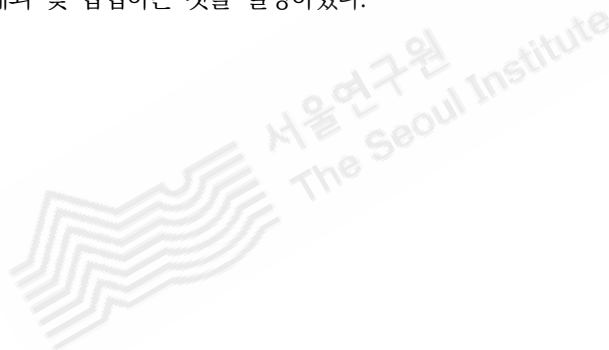
4_연구의 엄격성과 윤리적 고려

연구의 엄격성 확보를 통해 결과의 해석을 신뢰할 수 있는 평가 기준으로 Guba와 Lincoln(1981)이 제시한 4가지 기준인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을 통해 질적 연구의 질, 즉 연구의 효과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사실적 가치는 연구참여자가 얼마나 진솔하게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 주었는가와 그것을 연구자가 얼마나 충실하게 서술하였는지를 의미한다(Lincoln & Guba, 1985). 이를 위해 자료분석 결과를 연구참여자에게 보여주고 그들의 경험이 잘 드러났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사실적 가치를 확보하였다.

적용성은 연구결과가 유사한 맥락이나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Lincoln & Guba, 1985). 이를 위해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연구참여자와 유사한 상황에

농인 경제적 취약계층 청년 1인에게 분석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연구결과가 영케어러의 경험을 잘 대변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일관성은 다른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했을 때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을 때 일관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Guba & Lincoln, 1981). 이에 따라 질적 연구방법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공동연구자인 사회복지학 박사 1인의 자문을 받아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중립성은 다원화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 심층면접, 시간일지 작성, 관찰 등을 통한 자료의 삼각화 및 연구자의 삼각화를 통해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검토하고 연구자의 해석에 중립성을 유지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고려사항에 대응하기 위하여 모든 연구는 연구윤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였고, 공용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인터뷰 전에 유선으로 연구의 목적과 과정, 인센티브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인터뷰 당일에는 연구참여자로부터 연구 설명서와 연구 동의서에 서면 동의를 받았다. 본 연구에 대한 자발적 참여와 연구 도중이라도 참여 중단을 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하였고, 전반적 비밀보장과 특정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협의하여 제외 및 삽입하는 것을 설명하였다.



03. 연구결과

1_사례 내 분석

1) 사례 1

[표 3] 사례1 일상생활 시간 사용

내용	시간
아르바이트 시간	하루 평균 10시간 38분(주 7일)
이동시간	하루 평균 3시간 4분
수면시간	하루 평균 6시간 51분
자기 관리시간(씻기, 외출준비, 식사)	하루 평균 1시간 47분
핸드폰	하루 평균 30분
가사노동	하루 평균 34분
할머니 방문	2주 2시간 30분
친구	주 1시간 30분

사례1은 현재 대학교 3학년 여학생(22세)으로 알코올 문제가 있는 아버지(69세)와 요양 병원에 입원한 할머니(89세)의 돌봄을 책임지고 있다. 사례1의 어머니는 사례1이 중학생 때 암으로 사망하였고, 아홉 살 위인 오빠는 군대 제대 후 집을 나가 연락이 잘되지 않아 원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까지 사례1은 할머니 소유의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였으나 아버지의 알코올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 약 5개월 전에 청년 주택을 배정받아 독립하였다. 그러나 작년에 아버지가 알코올 문제로 직장을 그만 두게 되었다. 아버지는 꾸준히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만 알코올성 치매 증상이 있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고 나이가 많아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할머니는 사례1이 독립

하자마자 갑자기 쓰러진 후 거동이 불가능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 사례1은 전문학사 과정을 졸업하고 올해 심화 과정에 등록하였다. 대학등록금은 생계보조 국가장학금을 지원받는다. 작년까지는 보통의 대학생들과 같이 자신의 용돈을 버는 수준에서 아르바이트하며 학업을 지속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자신의 월세와 생활비, 할머니의 요양병원비, 아버지의 생활비를 보태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었다. 가족 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뿐이기에 학업을 포기하고 전공과 상관없는 시급이 높은 일을 찾아 일주일 내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사례1의 생활시간 사용은 주간과 주말에 차이가 없다. 주말과 주중에 상관없이 7일 내내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이다. 하루 시간 사용에는 아르바이트하는 시간과 이를 위한 이동시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주된 아르바이트는 통닭집 주방업무이며 3개 지점을 순환하며 근무한다. 연구자가 조사한 한 주간은 두 개의 지점을 순환하였는데 먼 곳은 편도 2시간 30분이 소요되는 지역으로 출근하였다. 통닭집에서는 하루 평균 8시간을 근무하고 월 200이 조금 넘는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사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급여를 결정하였다. 학교 수업이 주로 야간에 있는데 치킨집도 야간 일손이 필요하므로 학업과 병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일자리이다. 가끔은 친구를 대신해서 오전 시간에 편의점 근무를 하기도 한다. 사례1의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은 10시간 38분이고 아르바이트를 위한 이동시간은 하루 평균 3시간 4분이다. 사례1은 청년 주택 신청 시 상권 중심지와 가까운 지역은 경쟁률이 높아 당첨 받을 가능성이 떨어져 외곽 지역에 신청하였다. 입주한 청년 주택이 직장이나 학교와의 거리가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더 멀어져 이동시간이 더 많이 소요된다. 결국, 집에서는 잠만 자고 일어나면 바로 출근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자기 관리시간은 씻기, 외출준비, 식사시간으로 집계하였다. 사례1은 집에서 거의 식사를 하지 않으며 식사시간이 따로 없이 일하는 틈틈이 식당에서 식사한다. 따라서 가사노동 시간은 평균 34분으로 짧다. 사례1은 2주일에 한 번씩 할머니가 필요한 생활용품들을 준비해 아버지와 함께 할머니를 면회하러 간다. 코로나로 병원 면회시간에 제한이 있어 2주마다 면회가 가능하다. 아버지의 형제로는 고모와 삼촌이 있지만, 월 80만 원인 할머니의 병원비를 고모와 사례1이 40만 원씩 분담하고 있다. 아버지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양을 사례1이 떠맡게 된 것으로 보인다. 사례1은 돈을 버는 것이 우선으로 학교 수업도 거의 나가지 못하며 친구들과 만남도 거의 없다. 주요행동이 아닌 동시에 한 행동으로는 일하는 틈틈이 책을 보며 공부했는데 자신의 목표와 상관없이 친구가 준비하는 한국사 공부를 하였다. 이동시간에는 주로 핸드폰으로 에브리타임을 보며 학과 친구들의 대학 생활을 살펴보았다.

사례1은 가정에 위기가 닥치기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가기를 희망한다. 친구들과처럼 다시 대학생으로서 학교에 다니고 할머니는 요양병원에서 나와 집에서 생활할 수 있으며 아버지는 술을 끊고 직업을 찾을 수 있기 바란다. 아버지는 거의 식사도 하지 않고 하루 두 갑씩 담배를 피우신다. 사례1의 아버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음주 문제가 있었지만 제대로 치료받은 적이 없다. 병원 입원 치료 비용이 너무 비싸 아버지가 치료를 거부하고 있다. 사례1은 할머니를 집으로 모셔오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방문 요양보호사를 이용해본 적이 있는데 할머니 성격이 까다로워 꾸준히 일하겠다는 요양보호사가 없었다. 사례1의 급여조건은 열악하다. 고용주로부터 직원 제의를 받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꿈이 있기에 거절하였다. 그러나 원하는 분야에 취업하려면 관련 인턴이나 봉사 경력을 쌓고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과 같은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데 하루라도 일을 쉬면 수입이 줄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학업에 미련이 있지만 이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아 출석 미달로 학교에서 재적 위기에 처해있다. 국가장학금으로 등록하였기에 일정 성적을 유지하지 못하면 다음 학기에는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 주간에 일할 수 있는 직장, 전공과 연계한 주간에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찾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거나 그런 일은 수입이 적어 필요한 비용 충당이 어렵기 때문이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적인 생활 패턴에서 빠져나오려면 일시적이라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2) 사례 2

[표 4] 사례2 일상생활 시간 사용

내용	주중(토,일 일함) 평균	주말(주중 수목에 씬) 평균
직장 시간(미용 근로)	10시간 40분	0
이동시간	2시간 30분	1시간 30분
수면시간	6시간 30분	11시간 30분
식사시간	0(분리시간 없음)	1시간
자기 관리시간	1시간	30분
핸드폰	2시간	2시간
가사노동	1시간 20분	1시간 30분
엄마 병원 방문	-	3시간
친구	-	3시간

사례2는 23세 여성으로 작년까지 아버지와 어머니 세 명이 동거하였으나 아버지께서 작년에 사망하신 이후로 현재 어머니(56세)의 주 돌봄자가 되었고, 관계가 소원한 오빠 1명이 있다. 어머니는 정신질환 병세가 어릴 적부터 매우 심각하여 자주 긴장 상태나 돌발 상황이 발생하였고, 가정 형편도 좋지 않았던 터라 오빠는 일찍이 지방으로 독립했다. 사례2 역시 학업을 일찍이 포기하고 취업을 위하여 미용 고등학교 입학하였고 졸업 후 바로 취업전선에 뛰어들었다.

학업을 원했지만, 생계를 위해 선택한 미용 일이 생각보다 녹록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밥 먹을 시간조차 독립적이지 않아 일에 대한 불편감이 매우 심하다. 매일 10시간 정도의 미용 업무 강도가 높아 직장을 그만둘 작정을 여러 번 했으나, 월 급여 200만 원이 없으면 당장 먹고 사는 가족 생계에 타격이 있어 직장을 그만두기도 어렵다. 그러나 기본적인 인권, 인간으로서 대접받지 못하는 직장 환경에 분노하고 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의 정신질환 증세는 자주 돌발 상황을 만들어 사례2가 외부에서 갑자기 집으로 뛰어가야 하는 상황들을 만들었고, 외부 활동이 원활하지 못했다. 최근 다소 호전되어 집에 홀로 계시는 것에 특이사항이 없으나 돌발 상황이 또 발생할까 늘 염려되어 전화를 붙들고 있다. 이러한 정신질환 증세는 사례2의 활동에 제한이 될 뿐 아니라 어머니의 집착도 심한 편이라 불만이 크다. 그러나 보호자가 자신밖에 없다는 생각에 어머니를 돌보는 것을 중심으로 생활한다. 때론 오빠가 지방에서 돈을 벌어 일부 경제적 보전을 해주기도 하지만 직접적 돌봄은 동생인 자신이 도맡아 하는 것이라 감정적으로 섭섭할 때가 많다. 그러나 어머니에 대한 돌봄을 온전히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을 일찍이 받아들여 오히려 애정적 마음이 크다. 이러한 돌봄 의무감 때문에 사례2는 비혼주의이며 만약 어머니를 함께 돌볼 의향이 있는 남자가 생긴다면(가능성에 부정적) 결혼이라는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볼 의사도 있긴 하다.

사례2의 생활시간 사용은 돌봄을 위한 경제적 책임을 지는 것에 집중되어 있고, 미용 업무 일과에 따라 생활시간에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미용 업무 특성상 보통 토요일과 일요일에 일해야 하며(금요일 ~ 화요일, 주 5일), 주중 2일(수요일 ~ 목요일)을 주말처럼 쉬는 형태를 띤다. 그리고 주중(금~화)과 주말(평일 수목)은 현저하게 생활시간 사용이 구분된다.

주중(금~화)은 직장 업무인 미용 일을 평균 10시간 40분 정도 한다. 미용 일에서도 아직 3년 차 스텝이라 잔무까지 도맡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업무 내 짧게라도 식사하는 것이 사장에게 눈엣가시처럼 보이고, 딱히 정해진 점심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손님이 있는 경우 식사를 못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직장 간 이동시간이 매일 평균 2시간 30분

가량 소요된다. 경제적인 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교통이 편한 시내권에 살지 못하고, 차량이 매우 간헐적으로 다니는 외곽에서 움직이기에 이동시간만으로도 피곤하다. 출퇴근을 위한 기본적 세면과 화장, 옷 입는 등의 자기관리 시간은 일일 1시간 정도 소요되고, 보통 잠들기 전 핸드폰을 하는 시간이 2시간가량 된다. 주중 근로하는 요일에는 집에 돌아와 집안을 돌보는 빨래나 설거지, 기타 엄마를 위한 일상 가사 일에 시간을 소요하는데 이는 평균 1시간 20분이다. 그 외 나머지 6시간 30분 정도가 수면시간이다. 주중 일상은 직장 근로시간이 대부분으로 단순해 보이며, 미용 업무에 장시간 사용하는 일상은 기본적 생계를 유지할 위한 절대적 시간 사용이라 할 수 있다.

주말(수목) 중 하루는 보통 엄마와 병원에 가는 것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최근 병세가 호전되어 격주 또는 월 1회로 다녀온 적도 있다. 보통 병원에 가는데 드는 시간은 3시간 정도이다. 주말엔 주중에 못 잔 잠을 몰아서 11시간 이상 잠을 자기도 하며, 본인을 위한 특별한 일상으로 편안하고 안정된 자신만을 위한 식사시간을 1시간 정도 할애한다. 보통 친구들과 쉬는 날이 달라서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종종 친구들과 짬을 내어 만나면 격월 1회 정도, 하루 평균 3시간 정도를 할애한다. 그 외 병원이나 친구 만나러 가는 이동시간 1시간 30분, 가사노동시간 1시간 30분, 자기관리 30분, 핸드폰 2시간 정도로 확인된다. 평상시 주말은 엄마와 집에서 일상을 보내거나 병원을 가는 것이 대부분이며 연중 행사처럼 친구들을 만나는 게 종종 발생한다.

사례2는 정규직 직장을 다니기를 원한다. 보통 다른 사람들의 일상처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쉬는 직장에 다니고 싶고, 업무시간과 쉬는 시간이 지켜지는 직장에서 점심식사라도 인간답게 하고 싶다는 바람이 크다. 사실은 사례2는 동년배들과 유사하게 학교생활을 경험을 간절히 하길 원한다. 다른 친구들처럼 아침에 일어나 학교에 가서 대학 강의를 듣고, 친구들과 팀 과제를 하며 저녁에는 친구들과 술이나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소소한 일상이지만 자신은 할 수 없는 동년배 친구들의 대학 생활을 하고 싶어 한다.

가능만 하다면 돌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경제적 부담도 책임지지 않고 어머니 정신건강 문제도 신경 쓰지 않고 오롯이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경제적 조건이 생기길 기대한다. 즉, 경제적 문제와 어머니 돌봄에 대한 새로운 대안, 더불어 자신의 학업과 직업에 대한 진로 탐색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3) 사례 3

[표 5] 사례3 일상생활 시간 사용

내용	시간
아르바이트 시간	하루 평균 1시간 50분
이동시간	주 2시간
수면시간	하루 평균 4시간 38분
공부시간	하루 평균 6시간 30분
자기관리 시간	하루 평균 3시간 21분
서포터즈 활동	하루 평균 50분
가사노동	하루 평균 3시간 25분
돌봄	하루 평균 2시간 17분
외출(외식) 주 3회	하루 평균 55분

사례3은 현재 대학 3학년 여학생으로(23세) 외할머니(70대 중반)의 돌봄을 책임지고 있다. 고등학생까지는 지방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다 재수하면서 서울에 올라와 자취를 시작했다. 대학 입학 후에는 학교 근처에 투룸을 구해서 할머니와 함께 생활한다. 사례3 가정의 주 수입원은 어머니이다. 어머니는 기업의 임원이어서 연봉이 높은 편이다. 아버지는 거의 20년을 무직으로 지내시다 최근에 취업하셨다. 서울에는 두 분의 외삼촌과 이모가 있지만, 할머니를 전혀 돌보지 않는다. 어머니는 친할머니의 생활비 보조와 외할머니의 치료비를 혼자 담당한다. 사례3은 어머니로부터 어느 정도의 생활비 지원을 받지만, 영어 과외를 하여 월세와 자신의 용돈을 스스로 마련하고 할머니 병원비를 지원한다. 사례3의 외할머니는 40여 년 전에 척추뼈 다섯 개가 부러진 것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것이 고질병이 되었다.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가 치료받지 못하게 하였고 순종적인 외할머니는 그대로 방치했던 것이다. 3년 전 서울의 큰 병원에서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있었으나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완치는 불가능하고 현재는 통증을 줄이는 치료를 받고 있다. 외할머니는 5년 전 위암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식사량이 4분의 1가량으로 줄어들었고 음식의 종류도 많이 제한된다. 소화가 어렵고 입맛이 없어 누군가가 챙겨드리지 않으면 거의 식사를 하지 않는다. 외동딸인 사례1은 어머니가 직장생활로 바빠 거의 외할머니 손에 자라 외할머니와 매우 친밀하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경제적 형편이 넉넉한 외삼촌과 이모가 외할머니를 돌보지 않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그 모든

책임을 엄마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안쓰러워 자신이라도 엄마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례3의 생활시간 사용은 주중과 주말에 큰 차이가 없었다. 외출은 가능하지 않으며 학교 수업과 과외를 대부분 비대면으로 하고 있다. 대학 1학년 때, 과외로 꽤 많은 돈을 벌기도 했지만, 할머니의 병원비와 돌봄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과 돈을 쓸 수 없는 상황에 우울감이 들었다. 그러다 자신을 위한 일로 회계사 자격증 취득 공부를 시작했고, 현재 하루 평균 6시간 30분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회계사 자격증 취득 공부에 사용하고 있다. 사례3은 가능한 집에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 수업, 과외,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 등을 모두 비대면으로 하고 있다. 회계사 자격공부도 인강 수업을 들으며 준비한다. 자신이 집에서 공부하면서 동시에 할머니의 일상생활을 돕는다. 과외에 소요되는 시간은 주 13시간이며 하루 평균 1시간 51분으로 시간 대비 소득은 높다. 외출은 할머니의 병원 방문, 할머니와의 외식, 주 1회 대면 과외 시에만 외출하고 가능한 할머니와 집에서 시간을 보낸다. 친구와의 만남이나 여행은 전혀 갖지 못한다. 사례3의 평균 가사노동 시간은 3시간 25분으로 다른 참여자보다 가사노동에 사용하는 시간이 많다. 혼자 살 때는 주로 배달음식이나 포장 음식을 이용했기에 가사에 드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위암 수술을 받았던 할머니의 식사 준비를 따로 해야 하는 점과 깔끔한 성격의 할머니가 몸을 움직이다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해 청소나 빨래가 쌓이지 않도록 사례3이 미리 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 즉 가사노동이 할머니 돌봄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 할머니 돌봄에 드는 시간은 하루 평균 2시간 17분이다. 돌봄은 식사 전에 허리 복대를 풀러 드리고 식사를 돕는 일, 식사 후 다시 복대를 채워드리고, 허리 찢질기를 시간마다 교체하는 일, 과일 및 약 챙겨드리기, 진통 주사 3번 놔드리기, 샤워해드리기, 이불 펴 드리기 등이다. 참여자 3의 가사와 돌봄을 합한 시간은 하루 평균 5시간 42분이다. 이는 일반 가정주부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사노동과 돌봄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다. 자기관리 시간은 식사시간, 씻기, 독서, 휴식시간 등으로 살펴보았는데 하루 평균 3시간 21분으로 다른 참여자보다 다소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나 휴식도 할머니와 함께 TV를 보내며 시간을 보낸다. 사례3의 생활시간 사용 중 특이점은 공부시간 확보를 위해 수면시간을 줄이고 새벽 시간을 이용하는 점이다. 사례3은 새벽 6시에 취침하고 하루 평균 4시간 38분인 적은 양의 수면을 취한다. 할머니 돌봄을 위해 밤을 새워 공부하고 새벽에 할머니의 아침 식사를 차려드린 후 잠을 자는 패턴으로 바뀌었다. 사례3은 현재 거주하는 공간이 투룸이지만 방 하나는 옷이나 살림 도구가 들어가 있어 할머니와 한 방을 사용하고 있다. 할머니와 공간적으로 떨어져서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서울에서 자취방을 구할 때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특별히

월세 감면을 받아 주소를 옮기지 못하여 서울시의 다양한 청년지원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소를 옮길 수 있는 투룸은 감당하기 어려운 월세를 지불해야 한다. 할머니 역시 서울의 좁은 집을 불편해하며 지방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살고 싶어 하지만 그 지역에는 다닐만한 병원이 없고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올 가족도 없다. 할머니가 혼자서는 식사를 잘못하기 때문에 식사를 보조해줄 손길이 필요하다.

4) 사례4

[표 6] 사례4 일상생활 시간 사용

내용	근로 일정(월,화,토) 평균	비근로 일정(수~금,일) 평균
아르바이트(상당소)	8시간	-
가사 및 돌봄 활동	2시간 30분	7시간 40분
수면	8시간	8시간
이동시간	2시간 30분	1시간 20분
연구 및 공부	-	5시간
자기관리	2시간	2시간
친구 만남	1시간	-

사례4는 29세로 2년 전 할머니의 간병으로 병원에서 24시간 간병인과 같은 돌봄 주 책임자로 지냈다. 현재는 할머니의 병세 완화로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가족들 간의 역할 분담이 조금 이뤄진 상황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또래 동년배들과 다르게 할머니 보호와 돌봄, 집안일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사례4의 동거가족은 할머니, 아버지, 언니, 그리고 본인 4명이 살고 있고, 어린 시절 아버지와 어머니 이혼으로 할머니의 손에 자라면서 할머니를 엄마라고 생각한다. 갑자기 2년 전 할머니의 병환으로 병원에서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벌어졌고, 사례4는 이 시기 학교 석사과정생이었다. 아버지는 친인척 회사에 근무하면서 종종 재택근무가 가능하나 가족의 경제적 책임자로 병간호를 온전히 책임질 수 없었고, 언니 역시 호주에서 유학 중이었다. 친가 친척 중 할머니의 딸인 고모가 있으나 고모도 어린 아동을 둔 가정주부로 병간호가 어려웠고, 오랫동안 할머니는 사례4의 가족과 함께 경제적 및 일상생활 활동을 함께 하였기에 병간호 책임은 사례4 가정이 책임져야만 했던 상황이었다. 아버지는 무척 가부장적이고 다른 사람 손을 빌려 할머니 병간호를 하는 것에 예민했기에 석사과

정생인 사례4에게 일시적으로 간병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을 내보였고, 강압적으로 느끼기도 했으나 다른 선택사항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4가 개인 학교 및 일상생활을 정리하고 병간호를 시작했다. 사례4는 할머니의 식사, 기저귀 케어, 목욕 등 병원에서 먹고 자며 생활했으며 그 시간을 회상하면 답답하고 우울하고 화가 많이 난다고 하였다.

다행히 할머니 병세가 호전되어 병간호를 1년 정도 하고 현재는 집에서 생활하는데, 아직도 또래 친구들과는 다르게 많은 시간을 할머니 식사와 일상 케어, 말벗, 집안 정리 등의 돌봄과 가사 일로 시간을 보낸다. 자신이 집안의 허드렛일 또는 보이지 않는 일인 가사 활동을 가장 많이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도 최근에 가족들과 업무가 분담되어 청년으로 자기계발과 공부, 진로를 위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다.

사례4는 일상생활 시간 사용이 현재 시점뿐만 아니라 과거에 간병 활동을 했던 시간도 의미 있게 해석되기를 기대하였다. 할머니 간병을 위하여 청년으로서 한창일 때 자신의 모든 활동을 접고 병원에서 24시간을 보냈다. 본 기간에는 개인을 위해 1시간도 사용할 수 없었고, 오로지 병원에서 할머니를 위한 간호와 돌봄으로 일상생활 시간을 소비하면서 24시간이 간병 시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다행히 할머니 병세가 완화되어 약 1년 전부터 돌봄을 집에서 할 수 있게 되었고 할머니 케어를 가족과 분담하면서 사례4도 개인 활동과 집안 살림을 조금은 밸런스 있게 담당하게 되었다. 현재 사례4는 자기계발과 성장을 위하여 박사과정 진학을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와 연계된 아르바이트 활동으로 상담사 업무를 주 3일 월, 화, 토요일에 근무한다. 자신이 아르바이트 근무하는 3일 중 하루는 아빠가 재택근무로 할머니를 케어하고, 하루는 고모가 방문하며, 토요일 하루는 유학에서 돌아와 취업한 직장인 언니가 할머니 케어를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지 않는 수, 목, 금, 일요일은 온전히 본인이 할머니와 집안 케어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사례4의 일상생활 시간 사용은 근무하는 요일(월, 화, 토, 주 3일)과 근무하지 않는 요일(수, 목, 금, 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근무하는 3일간의 일 평균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이동시간으로 2시간 30분 사용된다. 종종 근무하는 날에 친구 모임 또는 동호회 활동으로 평균 1시간 정도 사용한다. 출퇴근 시 기본적인 씻기, 화장, 옷 입기, 식사 등 일반 자기관리 시간이 2시간 정도 소요되고, 일 평균 수면시간은 8시간 정도이다. 근로하는 동안에도 퇴근 후에는 할머니 약을 챙겨드리거나 다음날 식사 준비를 위해 반찬 만들기 등의 집안 및 가사 활동을 2시간 30분 정도 사용한다. 현재 근무하는 요일은 보통의 직장 청년들의 일상생활 사용과 매우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근무하지 않는 요일(수, 목, 금, 일, 주 4일)은 온전히 할머니 일상생활을 돌보거나 집안

살림을 하는 시간이 많아, 일 평균 7시간 50분 정도 사용한다. 기본적으로 할머니 머리 감기와 목욕 씻기에 도움 주기,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준비를 위해 장보기, 밥과 국 끓이기, 밑반찬 만들기, 설거지, 빨래, 방과 화장실 청소, 걸레질, 재활용, 옷과 냉장고 살림 정리 등 집안 살림만 하는 주부처럼 집안일을 한다. 할머니가 짧지만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 틈만 나면 공부를 위해 집 근처 도서관을 가서 5시간 정도 지낸다. 하지만 이때 연속적인 5시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 준비를 위해 2~3번 이동하게 되며 일 평균 1시간 30분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이동시간에 사용한다. 즉, 아침에 식사 준비하고 식사 정리 후 도서관에 가고 점심을 챙기러 다시 집에 왔다, 다시 도서관으로 가는 패턴으로 공부를 이어가고 있다. 이동을 위한 일상 자기관리와 핸드폰 사용 등에 일 평균 1시간 40분 정도를 보낸다. 근무하지 않는 요일에는 영유아를 돌보는 육아하는 주부 같은 일상을 보내기 때문에 전혀 사고 활동을 할 수 없어 답답함을 느낀다.

사례4는 다른 사람의 일정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오롯이 자신 개인만의 스케줄에 따른 일정과 시간 배정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활발하게 하며 사회적 관계를 확대하고 싶어 한다. 또한, 자기 성장과계발을 위하여 진로 탐색과 취업 정보 등이 활발히 공유되길 기대한다.

5) 사례 5

[표 기 사례5 일상생활 시간 사용

내용	시간
아르바이트 시간	하루평균 5시간 17분(주6일 근무)
이동시간	하루평균 1시간 8분
수면시간	하루평균 7시간 4분
자기관리 시간	하루평균 2시간 56분
공부시간	하루평균 2시간 8분
가사노동	하루평균 4시간 17분
돌봄	하루평균 1시간 8분

현재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사례5는 25세 여대생이다. 네 자매 중 맏딸로 중학교 3학년인 셋째 동생과 초등학교 1학년인 막냇동생의 식사와 돌봄을 담당하고 있다. 방학 동안 사례5는 주중에는 회사업무를 보고 목요일 저녁과 토요일에는 학원 강사를 한다.

그동안은 과외를 많이 했지만, 취업 경력을 쌓기 위해 얼마 전 작은 회사에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재택근무와 현장 근무를 번갈아 하고 있다. 급여가 많거나 일을 배울 수 있는 곳은 아니지만, 업무가 과도하지 않고 집에서 틈틈이 동생들을 돌볼 수 있어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사례5의 아버지는 코로나-19 발발 이후 다니던 직장에서 실직하여 현재는 경비를 하며 최저 임금 정도의 급여를 받는다. 어머니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제활동에 대한 의지가 없고 막냇동생 양육도 방임적이다. 부모님은 오래전부터 관계가 좋지 않았다. 아버지는 폭력적이고 엄마는 의존적이다. 아버지가 경제권으로 확대해도 스스로 경제활동 할 의지가 없다. 이처럼 불안정한 가정체계 내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사례5는 공부로 해결하여 대학에 진학했지만 둘째 동생은 다른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 외로움을 해결하려 했다. 현재 둘째 여동생은 성범죄 피해자가 되어 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이다. 사례5는 역기능적 가족체계의 원인제공이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와의 대화를 거부한다. 셋째 여동생은 현재 중 3이고 공부에 욕심이 많다. 좋은 학원에 다니고 싶고 사례5처럼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 한다. 사례5는 자신이 동생들을 돌보지 않으면 남은 두 동생마저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동생들을 돌보는 일은 자신이 떠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례5의 하루 생활시간은 동생들의 아침 식사 준비로 시작한다. 학교나 직장 출근 시에도 우선순위는 동생들의 등교준비이다. 엄마와 한집에 있지만, 엄마는 동생들의 등교를 돕지 않는다. 동생들의 등교준비를 위해 학기 중에는 일부러 오후 수업을 선택하였다. 사례5는 동생들의 아침과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 하루 평균 식사 준비에 4시간 17분을 사용한다. 점심시간에는 엄마와 한 집에 있지만, 엄마와 대화하지 않고 서로 먹는 음식이 달라 각자 해결한다. 재택근무는 주중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다. 이 시간이 언제나 바쁘게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대기 중이어야 한다. 목요일 퇴근 이후와 토요일 오전에는 회사업무 대신 학원 강사로 근무한다. 회사와 학원 양측은 투잡을 뛰는 것을 모르고 비밀리에 진행 중이다. 주중과 주말을 합한 사례5의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은 5시간 17분이다. 사례5는 회사업무를 보다 학교 시간에 맞추어 학교에 동생을 데리러 갔다가, 학원에 데려다준다. 아직 초등학교 1학년인 동생이 길거리를 혼자 다니기에는 어린 나이라고 생각한다. 저녁 식사 이후에는 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막냇동생이 지루해하면 책을 읽어주거나 놀아준다. 하루 평균 동생 돌봄 시간은 1시간 8분이다. 이는 본인이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동생만을 돌본다고 느낄 때 적은 시간이며, 실제로 돌봄은 식사시간이나 본인의 공부시간 중간중간에 계속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식사 준비와 돌봄 시간을 합하면 사례5가 가사노동에 사용한 시간은 하루 평균 총 5시간 25분이다.

사례5는 자신을 위해 더 투자하고 싶은데 경제적·시간적으로 형편이 안 된다. 취업 준비를 위해서는 공부에 집중해야 하고 취업학원이나 면접 준비 등을 해야 하는 데 자신을 전혀 지원해주지 않는 아버지가 원망스럽다. 공부는 주로 독학으로 하고 있는데 어학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회화 연습이 필요하여 학원에 다니며 공부하기를 원한다. 대학의 동기들은 가족과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공무원 시험 준비나 로스쿨 준비 등을 하는데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다르게 느껴진다. 또한, 자신에게는 동생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들인데 동기들에게는 그저 귀엽게만 보인다는 것에 괴리감을 느낀다. 시간이 좀 더 주어진다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돈을 더 벌고 싶다. 공부하기를 원하는 셋째 동생의 학원비를 지원해주고 싶고,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싶다. 사례5는 무책임하게 자식들을 낳아만 놓고 돌보지 않는 엄마에게 당신이 낳은 자식을 책임지라며 항의도 해보았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는 엄마의 태도가 쉽게 변화하지 않을 것 같아 엄마에 대한 기대를 포기했다. 사례5와 셋째 동생은 이러한 이유로 구청에서 연계해 준 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상담을 통해 무엇인가 변화하기를 기대하기보다 상담기록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 어떤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길 기대한다.

2_사례 간 분석

[표 8] 연구참여자의 일상생활 경험에 대한 구성요소

의미 단위(90개)	하위구성요소 (20개)	구성요소 (5개)
부모의 이혼 또는 사망으로 한부모 가족이 됨 엄마 대신 키워주신 할머니의 돌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 조모의 돌봄을 꺼리는 부모세대 형제자매 간의 갈등 부모와 멀리 떨어져 지내는 오빠 부모님의 불화로 화목하지 않은 가정환경 자신의 문제로 돌봄을 나눌 수 없는 동생	(1) 가족자원 부족과 가족갈등	1) 영 케어러가 된 배경과 상황
연로하신 할머니의 수술 및 치료로 거동이 어려움 아빠의 만성적인 음주 문제와 알코올성 치매 증상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엄마의 신체적 위험을 가하는 사고 발생 오래된 부모님의 부부 갈등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가정환경 정신적 문제로 경제활동, 가사, 양육에 무관심하고 방임적인 엄마	(2) 가족 구성원의 기능적 어려움	

의미 단위(90개)	하위구성요소 (20개)	구성요소 (5개)
아버지의 사망으로 실질적 경제적 가장이 됨 아버지의 실직 후 가정 경제가 어려워짐 자신에게는 더는 경제적 지원이 어려운 가정 형편	(3) 가정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	
타인에게 돌봄을 맡기는 것이 불효라고 생각하는 가부장적 인식 정부 지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이라는 선입견 사회에 바친 돌봄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4) 돌봄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인식	
병원 진료 시 동행자 및 보호자의 역할 잔심부름과 같은 소소한 일상 돕기와 기저귀 갈고 씻겨드리기 하루 세 번의 진통 주사 놓기 할머니에게 식사 먹여 드리기와 약 챙겨드리기 요양병원에 계신 할머니를 위한 생활용품들을 준비하여 면회 가기	(1) 간병인과 활동 보조 역할	2) 다양한 돌봄 역할
빨래, 청소, 식사 준비, 식재료 쇼핑 등의 가사 전담 아이 있는 전업주부와 같은 생활 아픈 할머니가 드실 수 있는 음식 준비 초등학생인 동생의 등하교 돕기 및 놀아주기	(2) 가사와 양육자의 역할	
할머니의 요양병원비, 치료비의 일부 부담 건강상의 문제로 취업이 어려운 아버지의 생활비 지원 가족의 생활비 마련	(3) 경제적 지원자의 역할	
기초생활 수급 유지를 위해 사회보험 가입 안 하는 프리랜서를 선택 전공과 상관없이 높은 시급을 주는 직장 선택 돌봄과 일 모두 가능한 재택근무나 비대면 과외를 선택 투잡 근무(회사 사무직과 학원 알바, 식당 근무와 편의점 알바) 주말과 점심시간이 없는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 자격증 및 경험 부족으로 낮은 단계에서 경력을 쌓으려고 함	(1) 일	3) 동년배 청년과 다른 영 케어러의 일상
가정 형편이 어려워 직업고등학교에 진학 생활비 마련이 급하여 학업을 중단함 할머니의 수술로 학업을 중단하고 병간호와 가사를 전담 돌봄을 위해 비대면 수업이나 오후 수업으로 시간표를 계획 학교 친구들에 비해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	(2) 학업	
주말 없이 긴 근무 시간이 반복되는 일상 동년배와 달리 가사노동에 많은 시간 할애 동년배들과 시간 사용이 달라 고립된 느낌 돌봄으로 자기계발, 취업 준비 시간 부족 친구와의 만남, 여행 등 자신을 위한 여가시간 부족 잠자는 시간을 줄여 공부시간 확보 나만의 시간을 위해 새벽형에서 올빼미형으로 바뀜	(3) 시간	
일과 공부하는 틈틈이 돌봄과 가사 일을 병행 출근하여 근무 중에도 항상 엄마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일상 할머니 혼자 집에 있는 것이 불안하여 가능한 외출하지 않음 인터넷 쇼핑을 이용하여 외출을 줄임 사회적 교류가 확연히 줄어듦	(4) 행동	

의미 단위(90개)	하위구성요소 (20개)	구성요소 (5개)
동기들보다 자신의 과업이 늦춰지는 것에 대한 괴로움 함께 엄마를 돌봐줄 남자가 아니라면 결혼은 어렵다는 생각	(1) 미래에 대한 불안감	4) 영 케어러가 당면한 어려움
당장의 생활비를 버는 데 바빠 취업 활동을 하지 못함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 취업 준비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취업이 두려움	(2) 취업 준비의 어려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엄마의 정신질환 사고로 늘 불안한 마음 낮선 사람과의 만남이 어려워 사회복지시설 이용을 꺼려하는 엄마 노인성 질병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없는 상태 효과적인 치료방법과 병원 선택의 어려움 늦둥이 동생을 돌봐야 하는 나의 삶	(3) 지속되는 돌봄의 부담	
청년 주택 유지가 어려워 자신만의 집을 반환하고 싶은 심정 아버지와 할머니 두 세대를 책임져야 하는 부담 병원비 때문에 알코올 중독 치료를 거부하는 아빠 스스로 벌어서 대학에 가야 하는 형편 쉬고 싶어서 사표를 냈지만, 경제적 문제에 대한 걱정은 지속됨 의료보험 적용 안 되는 높은 자기 부담 비용 병원비 부담으로 가족 모두 스트레스를 받음	(4) 생활비와 병원비의 부담	
자신이 희생하게 된 상황이 화가 나고 원망스러웠음 간병인과 가정주부와 같은 생활로 스트레스 받음 자신을 위한 시간과 돈을 쓸 수 없는 상황에 무기력하고 우울해짐 잠시 쉬는 시간에도 죄책감을 느끼게 됨 아버지의 음주 문제가 트라우마로 남음 포래들이 자연스럽게 누리는 일상과 비교되어 위축됨	(5) 정서적 어려움	
사회활동과 자기계발을 위한 시간 친구를 만나거나 여행을 갈 수 있는 여유 자신의 진로와 미래를 위한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1) 청년기 발달과업을 위한 시간과 공간	5) 영 케어러의 평범한 일상을 위한 바람
아간대학에 가고 싶어도 돌봄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 정신질환자의 돌봄 지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요양보호사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한 복지혜택 노인의 병원 동행서비스	(2) 돌봄 부담의 나눔	
서울에 집중된 질 좋은 의료서비스 체계적인 의료 정보 서비스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교통편의 시설이 부족하여 위급한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의 부재	(3) 의료서비스의 개선	
대학 생활에 대한 동경 취업 면접 준비 및 자기소개서 작성에 관한 도움 취업 준비 공부를 위한 경제적 도움	(4) 학업, 취업 준비 및 정서 지원	

1) 영 케어러가 된 상황

(1) 가족자원 부족과 가족 갈등

본 연구에 참여한 영 케어러들의 돌봄 대상은 조부모, 부모, 동생 등이다. 사례1과 사례4는 부모님의 이혼 또는 사망으로 한부모 가정이 되어 할머니의 돌봄을 받았고, 사례3은 직장생활하는 엄마 대신 할머니의 돌봄을 받고 자랐다. 사례3은 대학 진학을 위해 서울에서 혼자 자취생활을 하다가 치료를 위해 지방에서 올라오신 할머니를 3년째 돌보고 있다. 어렸을 때는 할머니의 조건 없는 보살핌을 받았지만, 자신이 성장함에 따라 할머니는 연로해졌고 하나둘씩 질병을 앓게 되었다. 영 케어러들은 엄마 대신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를 돌보는 것을 어느 정도 자신의 몫이라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부분도 있다. 부모의 형제자매가 있지만, 재산문제와 같은 이해관계로 갈등이 있거나 넉넉하지 못한 경제적 형편, 또는 돌봄을 담당하겠다고 나서지 않는 소극적인 자세 등으로 돌봄의 부담이 부모세대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손자녀에게 맡겨졌다.

일단은 어렸을 때 아빠랑 엄마가 이혼하면서 저는 기억도 못 할 정말 저 갓난 아기 때 할머니 손에 계속 자랐는데 중학교 정도까지는 정말 그냥 보살핌을 받았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부터 이제 할머니가 좀 몸이 약해지고 하면서 점점 집안일에 대한 부담이 점점 저희 언니랑 저한테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오더라 고요.(사례4)

외삼촌 두 분이랑 이모 한 분이 있는데 다 할머니를 거의 버리다시피 하셔요. 돈이 아깝다고. 그냥 정말 제가 봤을 때 외할머니가 자식들한테 정말 잘해 주셨거든요. 근데도 돈이 아까워서 그냥 외할머니 버리셨어요. 그냥 외할아버지 살아계실 때까지만 해도 돈이 될 것 같으니까 붙어 있으시다가 심지어 외할머니 밑에 있는 유산, 외할머니한테 넘겨드린 재산 있잖아요. 외할머니 재산도 첫째 삼촌은 꿀꺽했어요. 이제 외삼촌이 가져가시니까 재산도 없잖아요. 외할머니 밑으로 그러니까...(사례3)

부모와 동생을 돌보고 있는 사례 1, 2, 5의 부모는 정신건강의 문제를 갖고 있었다. 사례 1, 2, 5는 모두 형제자매가 있으나 돌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다. 사례1과 2는 오빠가 있으나 일찍 부모 곁을 떠나 독립하였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정신질환 사고 및 음주와 폭력으로 받은 상처로 의도적인 단절을 한 것으로 보인다. 부모님의 불화와 싸움이 늘 있었던 사례5는 어머니의 정신적 어려움으로 늦둥이 막냇동생의 돌봄을

담당하고 있다. 성인이 된 여동생이 있으나 가정불화가 심하여 불안정한 가정환경 속에서 타인에게 애정 욕구를 충족하려다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 동생도 치료를 받는 형편이어서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빠도 어려워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수입이 그렇게 일정하지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저한테도 빌리기도 하고 오빠한테 드는 돈도 좀 있어서 제가 오히려 주는 편이에요. (중략) 오빠랑 나이 차이가 많이 한 9살 차이 나는데 오빠 22살 군대 다녀오고 나서부터 혼자 산 것 같아요.(사례1)

예전부터 엄마 아빠가 많이 싸우긴 했는데 집에만 가면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근데 저는 또 공부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할머니 집에 가거나 아니면 독서실에 새벽까지 있거나 하면서 집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해서 대학에 갔고 둘째는 공부에 뜻이 없어서 그냥 집에서 계속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스트레스를 다 받아서 애가 조금 엇나가고 막 그냥 아무 남자나 만나고 이러다가 조금 성범죄도 당하고 이래서 지금은 치료센터에 아직도 있어요.(사례5)

(2) 가족 구성원의 기능적 어려움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영 케어러가 된 상황은 조부모의 노인성 질환과 부모의 정신건강의 문제로 스스로 일상생활 유지가 불가능하거나 그동안 자신이 책임져왔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조모의 연령은 적게는 70대 중반에서 많게는 90세에 가까운 연령이었다.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노년의 삶은 여러 가지 질병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며 연약해진 육체는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다. 노화로 인한 질병은 일상생활의 기능에 장애를 만들었고 완치가 어려워 생명이 다할 때까지 질병의 고통과 함께 살아야 한다.

(병원에) 계속 계셔야 돼요. 옛날에 저 여렸을 때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말을 잘 못 하시거든요. 거기서 이제 할머니가 89살 정도 되시는데 제가 이사 가고 나서부터 화장실도 잘 못 가시고 하셔서 병원에 가셨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사례1)

할머니가 몇십 년 전에 40~50년 전에 허리뼈가 아니 척추뼈가 다섯 개인가 부러졌는데 근데 그게 치료를 안 하고 방치를 하셔서 그 당시에 이제 여자가

뭔 치료를 하나 이렇게 외할아버지가 말씀을 하셔서 치료를 못하고 방치를 하
셔서 그게 치료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계속 고통스럽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시멘트 그거를 척추뼈 안에 넣기도 하고 또 개인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그걸 많이 무서워하셔서 옆에서 케어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긴 해요.(사례3)

정신건강의 문제를 가진 부모의 경우 신체활동에는 어려움이 없으나 사회적 기능의 손실
이 크다. 사례2의 엄마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목숨을 위협하는 사고를 일으켜 항상 지켜보
아야 하는 상황이다. 음주 문제로 실직한 아버지는 알코올성 치매 증상이 있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고 새롭게 직장을 구하는 것도 어려운 현실이다. 사례 5의 어머니는
권위적인 아버지와의 부부 갈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자기만의 동굴에 들어가
초등학교 1학년인 막냇동생을 전혀 돌보지 않는다. 영 케어러의 가정은 노화로 얻은 질병,
정신건강의 문제가 있는 부모의 사회적 기능의 어려움을 대신할 누군가가 필요했다.

근데 이제 그게 약간 경비 식으로 일을 하는 건데 건물 안에 있는. 약간 주상
복합인데 그런 건물 안에 있는 경비로 일을 하는 건데 택배가 오면 상가 호수
를 기억해서 택배를 가져다주는 건데 하루를 갔더니 기억을 못 해서 못하겠다고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니까 마음 아프긴 하더라고 기억을 못
하시니까. 근데 저랑 작년에 있었던 일도 기억 못 하는 거예요, 그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작년에 이거 기억나? 하고 계속 물어봤는데 모르겠대요.(사례1)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셔서 어머니가 저를 낳고 나서 정신질환이 오셔서 정
신병원에 좀 많이 오랫동안 입원을 하셨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게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중략)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제가 충격을
너무 큰 거라서 기억에 남는 거지만 제가 어렸을 때 오빠랑 같이 티비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갑자기 망치를 들고 와서 옛날 망치는 뒤에 그 뽕죽하게
생겼잖아요. 그거로 머리통을 찍으신 거예요. 오빠 머리를. 그래서 엄마도 그
순간 찍고 나서 당황해서 112랑 119에 전화해서 오빠 구급차 실려 가고 저는
그게 충격에 남아서 아직도 그 공포에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사례2)

엄마도 지금 정신 치료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멀쩡한 상태가 아닌데 또
억지로 일을 하면 또 나중에 뭘 일이 생길지 몰라서 그냥 포기했어요. 지금은
(중략) 병원 가서 상담받고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거는 말 안 해요 저
한테.(사례5)

(3) 가정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

본 연구에 참여한 영 케어러 가정의 경제적 형편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로 대학을 갈 수 없는 형편에서 자비로 유학을 갈 수 있는 형편까지 다양하였다. 코로나 기간에 아버지가 실직한 사례1과 사례5는 아버지의 수입이 전혀 없거나 줄어들어 자신이 가정의 생활비를 위해 더 많이 일해야 했다. 사례2의 어머니는 정신질환이 있어서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아버지도 10여 년 전에 당뇨병으로 쓰러지신 후 일을 하지 않아 빈곤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최근에 아버지가 사망하여 이제는 자신이 전적으로 가정 경제를 책임지게 되었다. 사례2의 오빠는 종종 40만 원의 생활비를 보내주지만, 사례1의 오빠는 오히려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사례5는 자신의 취업 준비와 자기계발을 위해 부모에게 금전적 지원을 요청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동생이 세 명이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영 케어러 부모님의 연령은 50대 후반에서 60대 후반으로 이 연령대의 남성이 실직 후 좋은 직장에 다시 취업하기는 쉽지 않았다. 아버지의 사망과 실직,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질병은 영 케어러의 가정을 급속도로 빈곤에 빠트렸고 몇몇 영 케어러들은 실질적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가장이 되었다.

알코올 중독 때문에 아빠가 일을 관두게 되어서 올해부터 일은 관둬서 아빠도 도와줘야 하고, 할머니도 갑자기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병원비를 고모와 제가 절반씩 내야 해서 더 그런 것 같아요.(사례1)

아무 일도 안 하셨는데, 원래 제가 엄청나게 어렸을 때 한 유치원 때부터 제가 초등학교 한 4~5학년 때까지는 나무 같은 거 가지고 만드는 거랑 그런 걸 하셨다가 당뇨 때문에 갑자기 쓰러지셨고 병원으로 가셔서 당뇨 판단 받으신 뒤로 일을 그만두셨죠.(중략) 그리고 작년 추석 때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때부터는 완전 다 끊긴 거죠.(사례2)

아빠가 혼자 돈을 벌고 계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회사도 다니던 데도 잘리고 그냥 지금 아파트 경비를 하시면서 그냥 최저 정도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근데 엄마는 조금 엄마가 둘째랑 뭐가 성격이 비슷해서 엄청 의존적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집에서 그냥 돈은 아빠가 벌여놓은 거 그걸로만 생활비 쓰고 그냥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서 핸드폰 하는 생활에 만족하고 그냥 집안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사례5)

(4) 돌봄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정보 부족

영 케어러들은 요양보험과 관련된 지원제도를 잘 알지 못하였다. 오직 사례1의 경우만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이용하고 있었다. 사례3과 사례4는 중요한 결정은 부모님이 하시는데 자신의 부모님을 타인의 손에 맡긴다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하는 가부장적인 인식이 있어 요양원에 보내거나 요양보호사를 이용할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 정부의 지원은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라는 인식이 있어 일정 소득이 있는 자신의 가정은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있었다. 또한, 사회에 비친 돌봄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요양보호사를 믿지 못하고 가족 내에서만 돌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요양원 이런 거는 아무래도 저희 엄마 아빠 세대에 부모님을 버린다는 선입견이 조금 있어서 요양원은 안 알아보았고요, 간병인은 엄마가 알아본 거로 아는데 안 댔다고 했어요. (주소가) OO여서 그랬던 건지 제가 서울로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주소가 본가와 분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사례3)

외출하면 제가 또 그 시간에 동시에 요양보호사분께 나가는 비용이랑 제가 또 나가면서 드는 비용이랑 이중으로 들잖아요. 사실 그게 좀 부담스럽기는 해요.(사례3)

근데 저희 아빠도 보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남을 집안에 드린다는 것에 거부감도 있었고 또 아빠도 너무 버거우니까 상황이 그런 거를 알아볼 생각을 못 했었던 것 같아요.(사례4)

저는 장기요양 제도 그걸 들었을 때 젊은 저도 그건 뭐가 쪽박촌의 독거노인분들을 위한 제도 같고 그래서 일단 그 제도를 이용하는 것조차 어떻게 보면 저희 아빠 입장에서는 좀 자존심 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사례4)

2) 다양한 돌봄 역할

(1) 간병인과 활동 보조 역할

본 연구에 참여한 영 케어러들은 환자를 직접적으로 돌보는 간병인과 활동 보조의 역할을 하였다. 입원과 수술을 마치고 통원치료를 받는 할머니를 돌보는 사례 3과 사례 4,

그리고 정기적 검진이 필요한 엄마를 돌보는 사례2는 병원 통원치료 시 보호자로서 동행하는 역할을 하였다. 큰 병원에 진료를 받는 날은 이동시간까지 반나절 이상에서 온종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환자와 보호자 모두 피곤하고 예민해진다. 직장을 쉬고 하루를 비워야 하는 부담과 휴일을 쉬지 못하고 병원 동행으로 하루를 보내게 된다.

보통은 저 휴무 날 맞춰서 예약을 하고 병원에 가시니까... 처음에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엄마랑 같이 병원을 가기 시작했었어요.(사례2)

할머니가 차를 그러니까 차멀미가 심하세요. 대중교통도 못 타시고 혼자.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뭘 할 수가 없어요. 어디 나가거나 이러면 제가 모시고 가요... 택시도 오래 못 타세요. 그러니까 탄다고 해도 30분 이내로. ktx나 기차도 가급적이면 안 타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서울에서 구미 올 때는 타야 되는데 그것도 일 년에 한두 번인 것 같아요.(사례3)

저희 할머니도 이제 지금은 횡수가 많이 빈도가 줄긴 했는데 아직도 한 달에 한 번은 큰 병원을 가셔야 해요. 할머니가 차 타는 것 자체를 특히 30분 이상 앉아 있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셔서...(중략) 병원을 가는 날이면 그 전날부터 약간 저희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뭘 챙겨가야 하는지 또 예약 시간에 맞게 했는지 할머니가 까다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신발을 신을 건지 그런 것부터가 되게 그리고 또 이제 도로 사정도 고려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 거에 아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아빠가 또 병원에 갈 거면 시간을 또 따로 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사례4)

사례 4는 할머니가 척추 수술을 하게 되면서 병원과 집에서 간병인 역할을 하였다. 사례 3과 4는 할머니와 한집에 거주하면서 간식을 챙겨드리거나 이부자리를 펴 드리는 등 손녀딸로서 할 수 있는 소소한 일상을 돕는 돌봄부터 기저귀 갈기와 목욕시켜 드리기까지 청년의 나이에 힘든 간병인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사례3의 할머니는 척추 통증으로 하루 세 번 진통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사례3이 직접 진통 주사를 놔드린다. 혼자 식사하기 어려운 정도의 몸 상태일 때는 미음이나 죽을 먹여드리고 때마다 약을 챙겨드린다. 사례 3과 사례4는 식사 준비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는데 수술을 받았던 할머니가 드실 수 있는 반찬이나 기타 음식을 따로 준비해야 했다. 한 방에서 할머니와 함께 잠도 자고 공부도 하는 사례3은 돌봄 시간을 따로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소한 심부름부터 모든 일상이

할머니의 돌봄과 함께 이루어졌다. 사례1의 할머니는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데 코로나 때문에 2주에 한 번만 면회가 가능하다. 사례1은 할머니에게 필요한 생활필수품 등을 챙겨 면회를 하러 간다. 정신질환 문제가 있는 사례2의 어머니는 다리가 불편하기는 하지만 힘들지 않은 가사 일과 일상생활은 스스로 가능하다. 다만 언제 어떻게 공격적인 행동이 돌출될지 몰라 늘 엄마의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엄마 자신도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 자신이 괜찮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 집착적으로 근무하는 딸에게 전화한다.

그때부터는 이제 아빠는 일해야 하니까 제가 병원에서 할머니 보살피면서 같이 자야 했고 또 그러고 할머니가 집에 돌아오신 다음에는 이제 또 간병인 역할 플러스 집안일 해야 했었던 것 같고 또 그 이후로 가장 큰 수술은 2020년에 했던 수술인데 원래 척추 수술이었는데 그때 할머니가 전신 마취한 게 조금 부작용 비슷한 게 나와서 선망 증상이 생겨가지고 그때도 수술하고 일주일 동안은 저랑 고모랑 아빠랑 번갈아 가면서 병원에서 잤었고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도 저는 할머니가 대소변을 혼자 못 가리셔서 기저귀 껴드리고 씻겨드리고, 식사를 위해 미음 같은 거 끓여드리고 하면서 집안일 플러스 간병인의 역할이 확실히 커졌었던 것 같아요. 2020년에 그게 2021년까지 지속하다가 할머니가 많이 회복하셔서 이제 요즘은 그래도 좀 숨통이 트여서 간병의 역할은 많이 줄어들었고 이제 집안일만 계속하고 있어요.(사례4)

제가 같이 살게 된 이유 자체도 할머니가 혼자 있으시면 오면 안 챙겨 드시고 그냥 밥을 하루에 한두 끼 이렇게 안 드시기도 하니까 저랑 같이 살게 된 것도 있거든요. (중략) 사실 요즘 할머니가 몸이 그렇게 썩 좋으신 편은 아니어서 아예 제가 거의 최근까지만 해도 거의 계속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돌릴 시간도 없었어요. (중략) 그러니까 허리에 좀 계속 그 찢질기 신간 교체해줘야 하고 그다음에 주사도 하루에 세 번씩 맞아야 해요. 그게 마약성 진통제인 것 같아요. 밥 먹을 때 밥 먹여드리고, 허리띠 풀어주고 또 가끔은 씻겨드려야 해요. 이제 심하실 때는.(사례3)

아빠가 없는... 이제 엄마 혼자니까 오빠라도 있으면 곁에 누구라도 있으니까 자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없으면 엄마 혼자 있으니까 엄마가 어떻게 될 할지 몰라 30분 또는 1시간, 또는 더 많이 제가 전화를 하기도 하고, 엄마가 전화하기도 해요.(사례2)

(2) 가사와 양육자의 역할

영 케어러의 돌봄 역할에는 가정주부와 같은 가사와 양육자의 역할이 있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렸을 때부터 조모의 손에 자란 사례4는 중·고등학생 때부터 다른 친구들에 비해 집안일을 많이 해야 했다고 기억했다. 사례3은 조모를 위해 가사 일을 혼자 담당하고 있으며, 사례4는 식사과정 중 졸업논문을 쓰려고 계획하였으나 모든 학업을 중단하고 전적으로 할머니의 간병과 가사를 도맡았다. 종일 빨래, 식사 준비, 식재료 쇼핑 등의 가사를 전담하며 마치 아이 있는 전업주부와 같은 생활을 해야 했다고 회상했다.

청소는 제가 하고요. 빨래도 제가 하는 것 같고 빨래는 근데 사실 세탁기 건조기가 있어서 별로 안 되고 장보고 이런 거는 휴대폰에 담아서 집 앞에 배송을 할 수 있게... 그냥 사실 장 보러 할머니가 직접 나가시려고 하는 것보다 이게 아프시니까 왔다 갔다 택시비가 더 드니까 (사례3)

할머니 세브란스에 계셨는데 그때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할머니 병원에 주간병인으로 있고 할머니 돌아오신 후에는 정말 그냥 가정주부가 된 듯한 생활을 했었어요. 그때 언니도 아빠도 일해야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자기 일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서 저는 1년 미루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냥 가정주부 생활을 하면서 그때 되게 집안 구조도 많이 바꾸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정말 집안일 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좀 우울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사례4)

사례5는 동생들의 아침 및 저녁 식사를 준비한다. 등교준비를 돕고 하교 시간에 맞추어 동생을 데리러 갔다가 학원에 바래다주는 일을 한다. 초등학교 1학년인 동생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놀아주는 등, 마치 엄마와 같은 역할을 한다. 사례5의 엄마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막냇동생을 돌보았는데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방임적 양육 태도로 바뀌었다. 아빠의 수입이 줄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엄마는 경제활동을 할 의지도 집안 살림이나 자녀교육에도 전혀 관심이 없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으나 둘째 동생의 문제를 보고 다른 동생들마저 잘못될까 봐 자신이 동생들을 챙기게 된 것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영 케어러들은 일반적으로 부모세대에서 감당하고 있는 가사노동과 양육에 집중하며 돌봄에 대한 의무를 본인의 나이보다 앞당겨 경험하고 있었다.

보통은 그냥 밥 같은 거 간단한 게 챙겨주고 동생들 간단하게 챙겨주고 그다음에 뭐 양말이나 뽀스나 이런 거 찾아 달라 이러면 한 번 찾아주면서 이렇게

등교를 돕고... 학교 갈 때도 일부러 오후 수업으로 해놓고 아침에 이렇게 했어요. (중략) 일을 주시면 빨리 끝내고 3시쯤에 이제 데리러 가요. 막내를요. 근데 다 주변이라서 괜찮긴 한데 중3 동생은 알아서 잘하고, 초1 동생이 근데 또 피아노 학원에 다니고 싶다 해서 그리고 3시에 끝나면 피아노 학원으로 데려다줍니다.(사례5)

(3) 경제적 지원자의 역할

본 연구에 참여한 영 케어러들은 모두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수입을 자신을 위해 투자하기보다 가정의 생활비나 병원비 지원에 사용하고 있었다. 사례1은 경제적 소득이 없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할머니의 요양병원비 일부를 지원하고 아버지의 생활비도 담당한다. 자신이 돕지 않으며 생활이 안 되는 사정을 알기에 외면할 수 없어 자발적으로 도와드리는 형편이다.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고등학교부터 취업을 위한 미용고를 입학했고 졸업 후 바로 취업하여 수입을 가족의 생활비로 지출하고 있다. 사례3은 병원비 부담이 커서 부모님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에 수술비를 보태거나 약값을 지원한다. 사례5도 동생들의 식사 준비에 필요한 식재료 구입에 큰 비용을 지출한다. 이처럼 영 케어러들은 자신의 수입으로 병원비 및 가정의 생활비를 돕는 경제적 지원자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제가 집에서 나온 이유가 아빠가 알코올 중독이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나오게 됐는데, 알코올 중독 때문에 아빠가 일을 관두게 되어서 올해부터 일은 관둬서 아빠도 도와줘야 하고, 할머니도 갑자기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병원비를 고모와 제가 절반씩 내야 해서 더 그런 것 같아요.(사례1)

아빠는 저랑 오빠한테 돈 쪽으로는 안 받으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안 드리면 살아갈 그제 안 되니까 그냥 해야겠다는 생각을 저 스스로 한 것 같아요.(사례1)

저 제 돈이 80(집값으로)이 나간다 치면 한 180 정도 남거든요. 180에서 한 30~40만 원이 생활용품이나 생활비 이것저것 쓰는 데 쓰고 그다음에 제 공부비 20만 원 정도 들고 나머지는 엄마한테 할머니 병원비 하라고 주거나 할머니 복용하시는 약품이나 또 영양제, 유산균 이런 것 비용을 제가 엄마한테 보내드려요.(사례3)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미용고를 갖고 졸업 후 취업하면 당연히 버는 돈은 가족의 생활비로 쓰고.. (중략) 나라에서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로 해서 그걸로 돈 들어오는 거랑 제가 일할 때 거기서 나온 돈이랑 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사례 2)

3) 동년배 청년과 다른 영 케어러의 일상

(1) 일

본 연구의 참여자인 영 케어러들의 일은 모두 비정규직이다. 사례3, 사례4, 사례5는 학생 신분으로서 학업과 일이 병행이 가능한 과외, 학원 강사, 파트타임 사무직 등을 하고 있으며, 사례1과 사례2는 풀타임 근무자이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조건이었다. 사례1은 전문학사 자격을 취득하여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공 관련 업무나 사회보험을 내는 것보다 시급이 더 높은 식당 아르바이트를 선택했다. 경력을 쌓거나 미래의 사회보장보다 당장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한 것이다. 사례2는 주5일 50시간 풀타임 근무를 하지만 엄마의 기초생활 수급 자격 유지를 위해 사회보험에 가입 안 하는 조건인 프리랜서를 선택하였다.

그건 국가 근로로 했던 거라 학교를 다니면서 하는 알바 형식인데 제가 학교를 잘 못 가고 돈이 많이 필요하고, 국가 근로는 수업이 있는 날에는 알바를 못하니까 그만두었던 것 같아요. (중략) 보통(시급으로) 만 원 정도 주시는데 제가 일하는 곳은 13000원 주신다고 하셔서 일하고 있어요.(사례1)

네, 안 되긴 안 되는데 근데 그게 4대 보험이 들어가면은 수급자는 잘리고요. 그리고 3.3% 세금 떼 가는 거는 안 잘려가지고.. 저는 여태까지 3.3% 그냥 세금만 떼고 보험이 들어가지 않는 쪽으로 해가지고 아예... (중략) 프리랜서로 들어가는 거죠.(사례2)

사례 3과 사례 5는 돌봄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비대면 과외와 재택근무를 선택하였다. 할머니를 두고 외출하는 것이 불안하여 가능하면 외출을 줄이려는 의도이다. 이동시간도 줄이고 쉬는 시간 틈틈이 할머니가 필요한 것을 살피드릴 수 있어서 수입은 더 적지만 비대면 과외를 선호한다. 사례5는 대학교 4학년으로 졸업을 앞두고 인턴 등 경력을 쌓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동생을 돌보려고 재택근무가 가능한 작은 회사를 찾아 취업하였다. 사례1과 사례5는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하고 있다. 사례1이 근무하는 식당은 체인

점으로 세 개의 지점을 순환하며 근무한다. 틈틈이 친구 대신 편의점 알바를 하기도 하여 쉬는 날이 없다. 사례5는 오랫동안 영어학원 강사 아르바이트를 해왔는데 회사에 취업한 후에도 강사 일을 그만두지 못하고 있다.

지금 사실 제가 공부 중이라서 1학년 때는 좀 과외를 많이 했는데 제가 회계사 공부 시작하고 나서는 네 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비대면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대면을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비대면에 조금 더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상태이긴 해요.(사례3)

그게 시급이 별로 안 돼서 그만두고 통닭집 하는 것을 지점만 다르게 해서 3개를 다녀요. 일은 아니고 1주일 다 가는데 며칠은 000 가고, 며칠은 00에도 가고 나눠서 다녀요. 원래 00에서 작년에 알바했었는데 거기서 계시던 분이 000점에 새로 오픈을 하셔서 시급을 높게 주신다고 하셔서 000에 가게 된 것 같아요.(사례1)

음 원래 했던 일은 아니고 옛날에 그 통닭집에서 일하기 전에 편의점 알바를 조금 했었거든요. 작년에. 근데 친구가 알바를 하다가 사정이 있어서 잠깐 대타를 해줬었어요. 아침에.(사례1)

제가 처음에는 회사를 처음에 지원할 때는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 프로세스가 서류 넣고 면접 보고 이런 게... 학원은 그냥 딱 넣으면 내일부터 나와라 이런 식으로 하고 알바도 바로 나와라 이러니까 제가 돈이 빨리 필요해서 시작했고 여기는 좀 오래 다녀서 그래서 못 그만두고 있는 (그래서 투잡을 하게 된) 그런 게 있죠.(사례5)

비정규직 풀타임 근무를 하는 사례1과 사례2의 근무환경은 열악하였다. 식당 주방업무와 미용사라는 서비스업종이라는 특성상 주말에 근무해야 하며 별도의 식사시간을 보장받지 못하였다. 사례1은 직장에서 음식을 만들면서 남는 것을 먹거나 손님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식사하기 때문에 근무 중 식사시간을 따로 기록하지 않았다. 사례2 역시 점심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식사를 해야 하는 점이 트라우마가 되었다.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고용된 직원의 입장으로 쉽지 않았다. 사례5는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갖추어야 하는데 아직 준비가 미비하여 취업할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인 상태이다. 현재의 직장에서도 크게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업무량이 적어 경력을 쌓으며 취업 준비를 병행할 수 있는 디딤돌로 거쳐 가려고 한다.

저는 무조건 주말 쉬고 싶어요. 주말은 무조건 쉬고, 그리고 점심시간을 아예 딱 정해두고 그때 시간만큼은 예약이나 워킹으로 오는 손님이 있어도 '저희 점심시간이라서 지금 조금 시술은 어렵다'라고 말을 드리고 싶고 퇴근 시간도 딱 정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정해져 있다 해도 손님이 계시면 또 가게가 눈치가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사례2)

인턴 같은 거. 모집 요건 이런 걸 보면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무슨 경험 이 있어야 하고 무슨 포토샵, 영상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하고 그래서 그런 거 좀 거르고 나면 그냥 이런 사무 알바밖에 할 게 없어서 일단 하고 있어요. 여기서 좀 경력 쌓고 옮기려고요.(사례5)

(2) 학업

본 연구에 참여한 영 케어러들은 생활비 마련과 돌봄의 부담으로 다른 동년배들처럼 학업에만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심지어 학업을 포기, 중단 또는 연기해야 했다. 사례2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일찍 직업고등학교에서 미용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다른 친구들처럼 대학에 가고 싶지만 스스로 벌어서 대학에 진학해야 한다. 사례1은 전문학사 과정을 졸업한 후 학사 과정에 등록하였는데 갑작스러운 가정환경의 변화로 학교에 거의 출석하지 못하여 제적의 위기에 있다. 사례4는 석사학위 과정 중 졸업논문 작성 시기에 할머니의 병간호를 전적으로 책임지게 되면서 학업을 1년 뒤로 미루었다. 사례3과 사례5는 돌봄과 학업을 병행하기 위해 시간을 가능하면 비대면 수업을 신청하거나 오후 수업을 신청하는 등 시간표를 조절하였다. 사례5는 동생들과 함께 취업시험 준비를 하려니 집중이 어렵고 방해되는 부분이 있다. 이처럼 본 연구에 참여한 영 케어러들은 경제활동과 돌봄이 우선순위가 되어 청년기의 발달과업인 학업이 후 순위로 밀리게 되었으며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있다.

바로 저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우선은 미용고 직업학교에 가야 했고 거기 는 해줬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만 총 합쳐서 300에서 400 정도가 들어 가요. 이제 그거를 저희 집이 만약에 100이면 20%는 저희 집에서 내고 나머 지는 나라에서 지급해주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000학원이라고 00에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도 나라에서 지원을 해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한 6개월 반 정도 거기 학원에서 자격증 취득하고 (학교도 가보고 싶었지만 형편상)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사례2)

작년까지도 그래도 알바하면서 제 용돈만 벌어도 됐는데 제가 혼자 살기도 하고, 집에 있는 가족들도 챙겨줘야 해서 돈이 더 필요해서 학교에 못 가게 됐어요. (중략)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을) 다 내긴 했는데... 상황이 2학년 때까지 괜찮았는데, 3학년 전공 심화로 올라오면서 안 좋아진 거라 등록은 했는데 상황이 어려워져서 (학교에) 못 갔어요.(사례1)

원래 3월부터 그냥 본격적으로 독서실에서 논문 쓰고 과제 하면서 지내려고 했는데 5, 6월에 할머니가 갑자기 수술하게 되면서 간병인이 필요한 입장에서 저밖에 할 사람이 없어서, 그때 제가 다 내려놔었어요. 그때 지도 교수님한테 연락해서 졸업 논문 못 쓸 것 같다. 1년 미뤄야겠다. 해서 그럼 행정 처리 다한 다음에...(사례4)

저는 사실 다음 학기에도 대면이랑 비대면이랑 섞어서 열리는데 제 공부하기에도 좋기도 하고 할머니 챙기기도 좋아서 그냥 비대면 위주로 많이 신청한 거예요.(사례3)

(3) 시간

본 연구에 참여한 가족 돌봄 청년(영 케어러, Young Carer)들의 시간 사용의 특징은 주말과 주중에 큰 차이가 없거나 주말이라는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는 점이었다. 사례1은 주 7일 근무하였고 출퇴근에 상당한 시간을 사용한다. 시급이 높은 곳을 찾다 보니 직장까지의 거리와 시간, 차비 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사례2는 주 5일 근무하는 직장인이지만 주중에 쉬고 주말에 근무하여 다른 동년배들과 함께 주말을 보내거나 종교 활동에 참여하기 어렵다. 서비스업종에 종사하여 남들이 쉬는 주말이 오히려 바쁘게 일하는 시간이며 긴 근무 시간이 반복되는 일상을 보내고 있다.

알람 맞춰놓는 시간은 일가기 전으로 설정을 해서 000에서 000까지 2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출발하기 2시간 반 전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씻고 준비해서 30분 안으로 준비를 마치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시간 반 걸려서

000역을 가고 2시부터 10시까지 일을 하고 다시 2시간 반을 걸려서 집으로 오는 편이에요. 그럼 집에 오면 12시 반에서 1시 정도 돼서 오자마자 핸드폰 하고 씻고 잠들어요.(사례1)

저는 사람들이 쉬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일해야 하니까 남들과 주말이 달라요. (중략) 그리고 솔직히 주말에 쉬면 애들 만날 시간도 많고, 또 저는 크리스천으로서 교회 다니는 입장으로서 주일 날 교회에 가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일을 시작하고 나서는 거의 교회로 간 게 손에 꼽아야 돼요.(사례2)

시간 사용의 차이는 주중에서도 나타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영 케어러들은 가사노동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다. 집안일을 도맡고 있는 사례4는 가족을 돌보는 자신과 친구들의 시간 사용이 달라 고립되는 느낌을 받기도 하였다. 주로 퇴근 후 약속 시각을 잡는 친구들과과는 달리 할머니가 주무신 후에야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이 아닌 자신만을 위한 친구와의 약속, 자기계발이나 취업 준비 시간의 부족함은 모든 사례가 동일하게 언급하였다.

근데 저도 혼자 살면 옛날에 저 재수 했을 때 혼자 살았을 때 저도 가사에 신경을 근데 그때는 워낙 공부하기도 했고 가사에 진짜 신경을 안 썼거든요. 저 도 청소도 대충하고 빨래도 일주일에 한 번만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할머니가 쌓이는 걸 못 보세요. 그리고 아무래도 할머니는 머리가 많이 안 빠지시는데 제가 머리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길어서 이걸 참지를 못하셔서 할머니가 움직이시려 하면 어쩔 수 없이 제가 움직이게...(사례3)

그냥 고립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낮에 이렇게 집에만 있고 동네에만 있으면 남들 다 활동할 시간에 저는... 예를 들면 정말 단순한 예로 단톡방이 활성화되고 그러면 그때 막 무슨 이야기가 나뉘지고 하는데 저는 바빠서 못 봐요. 저는. 예를 들면 10시 이후에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그때 보기 시작하면 이미 대화는 끝나 있고 교류도 끝나 있고 하니까 다른 애들이 활동할 때 저도 활동하고 싶은 마음이에요.(사례4)

사례3은 자신의 하루 스케줄은 할머니의 몸 상태에 따라 달라졌으며, 동생을 돌보는 사례5의 하루는 동생들이 등교한 후에야 시작된다. 할머니를 돌보고 있는 사례3과 사례4는 자신만의 시간 확보를 위해 밤 시간을 이용하는 올빼미형으로 생활 패턴이 바뀌었다.

사례3은 할머니가 주무시는 시간 동안 자격증 취득을 공부하고, 할머니가 새벽에 일어나 시면 아침 식사 준비를 해 드린 후 잠을 잔다. 수면시간이 부족하지만 아무리 피곤해도 혼자 조용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할머니랑 같이 살기 전에도 한두 시에는 잤던 것 같은데 할머니가 워낙 일찍 주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찍 주무실 때 제가 공부하려고 그때 새벽에 주로 공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사례3)

그때는 그냥 하루 종일 힘들었고 한 저녁 할머니 주무시고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 있었던 저녁 10시 이후 새벽, 근데 원래 그렇게 올빼미 스타일이 아닌 데 그때 생긴 버릇이 한 새벽 3~4시까지 깨어있는 버릇인 것 같아요. 그때가 저는 너무 좋았어가지고 평화로워서 그 시간이...(사례4)

(4) 행동

돌봄을 제공하는 영 케어러의 행동반경은 주로 집과 집 주변으로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였다. 사례3, 사례4, 사례5는 재택근무를 하거나 공부하는 틈틈이 돌봄과 가사를 병행하고 있다. 사례4는 할머니의 몸 상태가 좋은 날 또는 고모들이 방문하는 날에는 집 근처 독서실에서 공부한다. 출근해야 하는 사례2는 근무 중에도 항상 엄마의 상태를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사례3은 부모님을 만나러 본가에 다녀오는 일도 불안하여 집을 비우기 어렵다. 할머니가 혼자 집에 있는 것이 불안하여 가능한 외출하지 않으려고 하며 필요한 물건은 주로 인터넷 쇼핑을 통해 구입한다. 이처럼 주로 집에서만 생활하다 보니 친구들과 만남, 모임 등에 참석하는 사회적 교류의 횟수가 확연히 줄어들었다.

다행히 연구실에서 논문 쓰고 그러는 게 집에서 가능한 일이며 가지고 저는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 할머니 과일 챙겨드리고, 그리고 아빠 출근하시고 그러면 저는 할머니 과일 챙겨드리고 TV 켜드리고 할머니 잘 계시는 거 보고 할머니 컨디션이 약간 안 좋으면 집에서 일하고 컨디션 괜찮아 보이거나 낮에 고모가 오신다고 하면 집 앞 독서실을 가요. 그래서 거기서 할 일을 하고 또 점심에 와서 할머니 점심을 차려드려요. 점심 차려드리고 저도 점심 먹고 설거지하고 만약 나갔다면 다시 나가고 집에 있었다면 그냥 계속 또 할 일을 하고 그러면서 틈틈이 청소기 돌리고 빨래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돌리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 같아요.(사례4)

저도 일 나갔을 때 엄마가 언제 그럴지 모르니까 쉬는 시간에 틈틈이 항상 집에 전화해요. 엄마가 전화를 안 받으면 저는 또 불안하죠. (중략) 엄마가 일하는 동안 수시로 집착하듯 전화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일하는데 (전화 때문에) 눈치가 보이기도 하구요.(사례2)

제가 옛날에 진짜 급한 일이 있어서 엄마, 아빠가 크게 다치셔서 000에 잠깐 갔다 왔는데 그 순간에 또 외할머니가 동시에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 함부로 잘 못 나가겠어요.(사례3)

그리고 쇼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인터넷 쇼핑. 열 몇 개씩 묶어서 파는 닭 가슴살이나 요거트나. 마트 가고 이럴 시간이 절대 없다 보니까 그냥 대량으로 인터넷에서 이런 거 많이 사두고...(사례5)

제가 사람들을 좋아하고 해가지고 상황이 바뀌기 전에는 되게 모임도 많이 나가고 하긴 했는데 할머니 아프신 이후로 모임 나가는 횟수가 압도적으로 줄어들었고...(사례4)

4) 가족 돌봄 청년(영 케어러, Young Carer)가 당면한 어려움

(1) 미래에 대한 불안감

본 연구에 참여한 가족 돌봄 청년(영 케어러, Young Carer)들은 자신이 아니면 돌봄이나 경제활동을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여 가족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학업을 발전시키고 진로를 개발하여 성인으로서 사회에서 첫발을 내딛는 준비를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동년배보다 학업이 늦춰진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었다. 20대의 영 케어러들은 연애도 하고 결혼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나이이지만 사례2는 자신이 엄마를 돌봐야 한다는 생각에 엄마와 함께 살면서 돌봄을 나눌 수 있는 배우자가 아니라면 결혼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결혼 비용을 생각하면 결혼은 지금보다 훨씬 신경 쓸 일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때는 좀 거기서 의미를 느끼지 못해서 제가 공부를 하거나 연구를 할 때처럼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약간 내 동기들은 다 졸업하고 나아가는데 나만 1년 늦춰진다. 이런 생각이 너무 괴로웠던 것 같아요... (중략) 그러니까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으니까 그거에 대해 제가 보답을 한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 마음으

로 1년을 기꺼이 미뤘던 건데 약간 지금 내가 이 나이 때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들은 너무나 많고 이 시기는 나에게 너무 중요한 시기인데 그거를 못하는 느낌이었어요.(사례4)

근데 저는 엄마가 결혼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결혼 안 할 거라고... 엄마는 혼자인데 어떤 남자가 엄마랑 같이 사는 걸 받아들이겠어요?, 결혼하면 신경 쓸 게 지금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자금, 집 이런저런 것들 그래서 뭐 그런 거 아무리 하나하나 풀어가도 또 몇 배가 더 돌아올 수도 있고 하니까...(사례2)

(2) 취업 준비의 어려움

사례1은 자신의 전공을 좋아했다. 현재 일하는 곳에서 정규직원으로 입사할 것을 제안받기도 하였지만,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정규직원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사례1은 자신이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전공 분야의 낮 근무가 가능한 직장을 구하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학교 수업이 대부분 저녁 시간에 있으므로 수업이 조금 적더라도 낮에 일하는 직장을 구하면 충분히 학업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데 아직 적극적인 구직활동은 해보지 않았다. 우선 취업 준비 시간이 부족하고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을 줄일 수 없기 때문이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취업 준비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관계에 있다. 자신의 전공 준비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취업한 친구들의 면접경험을 들어보면 자신이 준비가 덜 되었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뭔가 이거 알바를 취업을 하려면 면접하는 시간이나 자기소개서 쓰는 시간도 솔직히 좀 하루 정도는 필요한 것 같고 그러면서 되게 알바에서 빠져야 되고 이러는 시간이 많아질 것 같은데 이게 취업이 또 준비한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준비하다가도 면접 보고 떨어질 수도 있고 하는 건데 그럼 또 빠지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만큼 또 시급이 주니까 당장 돈이 급해서 시급이 줄어들리니까 사장님한테 빼달라고 말을 이렇게 쉽게 잘 못 하는 거 같아요.(사례1)

알바하는 시간을 좀 줄여서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취업을

한다는 거에 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주변 친구들도 이제 전문대 졸업한 애들은 거의 취업 준비를 해봤으니까 그런 걸 옆에서 봤을 때 진짜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지 그리고 또 내가 낸다고 될까라는 생각도 좀 있어서 생각보다 쉽게 행동으로는 못 옮기는 것 같아요.(사례1)

동생을 돌보는 사례5는 취업 준비를 위해 어학 공부를 하고 있다. 부모님의 지원이 있다면 학원에 다니며 회화 공부를 하고 싶지만, 자신에게는 더이상 경제적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독학으로 공부한다. 사례5는 공부에 집중하고 싶지만, 항상 동생들과 시끄러운 환경 속에 있으며 동생들이 공부를 가르쳐 달라고 하거나 놀아달라고 해서 취업 준비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환경이다.

제가 만약에 이 동생들이 없으면 제가 공부에 올인하고 좀 이럴 수 있는데 조금 시끄럽고 이렇다 보니까 환경이 좀 그렇지가 않아서 그래서 짜증 나요. (중략) 셋째는 놀자 하는 것도 있고 뭐 알려달라고 막 찡찡대는데 저는 싫어 이려고 그냥... 네 자기 과외 해 달라, 공부 알려 달라, 막 궁금한 거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저는 진짜 넷째도 힘든데 셋째까지 그러면은 귀찮아서. 컷으니까 그냥... 거절해요. 저리 가라. 꺼져라 이려고. 나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니까 너도 알아서 해라.(사례5)

(3) 지속되는 돌봄의 부담

가족 돌봄 청년(영 케어러, Young Carer)의 어려움은 돌봄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사례4는 1년 만 학업을 미루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힘든 시간이었지만 할머니에게 해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효도라는 의미를 부여하며 참고 견딜 수 있었다. 그러나 사례1과 사례3의 할머니는 건강이 더이상 좋아질 수 없는 상태로 고통을 완화하는 정도의 치료로 연명하거나 병상에 누워만 계셔야 한다.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돌봄의 끝을 알 수 없다는 것인데 돌봄의 끝을 기대한다는 것은 할머니의 사망을 의미하므로 영 케어러들은 무엇도 희망할 수 없는 갈등상황에 있다.

계속 계셔야 돼요. 옛날에 저 여렸을 때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말을 잘 못 하시거든요. 거기서 이제 할머니가 89살 정도 되시는데 제가 이사 가고 나서부터

화장실도 잘 못 가시고 하셔서 병원에 가셨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사례1)

이 의사분께서도 절대 고칠 수 없는 병이고 그냥 고통 완화만 해 드릴 수 있다 정도로 말을 하셨고 또 아무래도 암을 앓으셨잖아요. 위암을. 그러면서 위의 반을 잘라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위암 수술하면서 더 안 좋아지기도 했고 또... 이게 후유증이라고 해야 되는지 밥을 못 드세요. 밥을 거의 4분의 1공기? 그리고 몸무게가 35키로?(사례3)

사례2는 근무 중이거나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에도 모든 신경은 엄마에게 집중되어 있다. 오래전부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엄마의 정신질환 사고로 늘 걱정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엄마는 점점 사회성이 떨어져 낯선 사람과의 만남을 어려워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을 꺼린다.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려는 의도도 있다. 사례2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보다 혼자 엄마 문제를 감당하는 것을 선택하였다.

아무리 애들을 만나도 스트레스를 풀려고 애들 만나서 술 먹고 노래방 가서 노래도 부르고 해도 더 걱정되는 거는 어머니가 너무 엄마한테만 내가 집중해져 있나 아니면 아빠가 있을 때도 똑같아서 이게 버릇이 되었나 되게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사례2)

저는 편한데 이제 어머니가 불편해하시죠. 어머니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거를 엄청 불편해하셔서 저도 되게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차라리 내가 일하러 갔을 때 엄마를 다른 곳에 보내서 저 일할 때 동안만이라도 케어해 줄 사람 혹시 있나 아니면 지원해주는 곳이라거나 봤는데 엄마한테 엄마의 의사가 먼저니까 물어봐도 절대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싫냐' 했더니 '불편하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뭘 할지도 모르는데 나도 내 자신을 못 믿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믿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알아서 해 그러고 말았죠.(사례2)

사례5는 20대 중반 나이에 초등학교 동생을 돌보는 자신의 삶이 평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엄마의 상태가 좋아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생이 중학생이 될 때

까지 자신이 돌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전부터 감정 기복이 심하고 막말을 하는 엄마가 동생들을 잘 돌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례5는 막냇동생이 중학생이 될 때까지 출퇴근이 자유롭거나 재택근무가 가능한 유연성 있는 직업을 선택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세상이 흥흥하다 보니 혼자 못 다니게 해야 할 것 같고, 초등학생 때까지는 그래도 데리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사례5)

그래도 좀 출근이 자유로운 데로 갈 것 같아요. 그러거나 아니면 아침에 다 같이 밥 챙겨주고 저도 나가고 애들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만약에 재택이 안 되는 곳이다 하면 저녁에 아침이랑 저녁에 와서 이렇게 돌봐주는 식으로 하고 이제 피아노 학원이나 이런 거는 엄마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사례5)

(4) 생활비와 병원비의 부담

본 연구에 참여한 가족 돌봄 청년(영 케어러, Young Carer)들은 다양한 경제적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에게 매를 많이 맞았다는 사례1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힘들어 청년 주택을 신청하여 독립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월세와 아버지의 생활비, 할머니 병원비를 부담하느라 이제는 청년 주택을 반환하고 다시 아버지와 함께 살 생각을 한다. 사례1은 아버지에게 정신병동 입원 치료를 권유해 보았지만, 아버지는 입원비가 비싸 치료를 거부하고 관심 없다는 태도로 일관한다. 사례2는 대학에 가려면 자신이 스스로 벌어서 가야 하는 형편이다. 직장도 고되고 몸은 쉬어도 당장 생활비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는 것도 어려운데 대학교 학비를 낸다는 것은 더 어려운 현실이다.

제가 집에 있는 게 너무 싫어서 일단 집에서 나오고 싶었는데 경쟁률이 너무 세서 서울 쪽은 3000~4000명이 지원하니까. 비교적 집이랑 가까워야 하고, 뭔가 좀 덜한 곳으로 하다 보니까 OO가 있더라고요. (중략) 너무 거리가 멀기도 하고 월세가 28만 원인데 관리비가 12만 원이에요. 뭔가 좀 비싸서, 아빠 사는 집까지 내니까, 근데 할머니 계시고, 아빠 있고 한데 따로 사는 방이 없어서 나오고 싶었던 것도 있는데 제가 이사 가고 할머니가 바로 병원에 가서서 집에 가면 방이 하나 있으니까, 아빠가 그래도 그냥, 전 어차피 집에 가면 잠만 자잖아요.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거의 없으니까 그냥 나와서 집에 살까 싶기도 해요.(사례1)

대학에 가서 친구들과 같이 강의 듣고 팀 과제 같이하고 저녁에 같이 놀기도 하고 평범한 대학교 생활하고 싶지만.... 당장 일을 안 하면 먹고 사는 것에 타격이 있으니까....(사례2)

사례3과 사례4의 할머니는 척추 수술을 받으셨다. 수술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치료가 잘못되어 재수술을 받아야 하거나 병원 사정상 각각 두 번 이상의 척추 수술을 받았다. 입원비와 수술비는 목돈이 들기 때문에 가정 경제에 부담이 되었다. 건강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여전히 많았다. 비교적 경제적 형편이 넉넉한 사례4도 이렇게 목돈이 들어가게 되면 집안 분위기가 어두워지고 예민해진다고 하였다.

보험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척추에 시멘트 넣고 이러는 거는 보험 처리가 안 돼요. 저희 할머니가 보험이 거의 안 됐던 이유가 보험을 들려고 해도 아프시니까 보험사에서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의료보험 하나만 적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일반 보험이나 이런 건 없는데...(사례3)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은 삼백에서 사백이고 이제 추가로 뭐 약값이랑 보약도 지어 드시고 영양제 뭐 이것저것 다 하면 거의 천만 원 들 때도 있고 적게 들 때가 육백. 그래서 고정적으로 삼사백은 나가고 그다음에 많이 들 때 천만 원씩 팍팍 나가고. 그다음에 진짜 많이 나왔을 때는 이삼천만 원 나왔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을 때 그때는 정말 많이 나와서 하루에 백만 원씩 나오니까 그때는 제가 도와드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사례3)

그때 저는 다행히 아버지가 일하셔서 아르바이트를 안 하긴 했지만, 할머니 수술 한 번 할 때마다 큰돈이 나가요. 그래서 그게 사실 집안의 분위기도 되게 흐리기도 하고 좀 더 예민해지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병원비라도 어떻게 지원이 되면 저의 책임감이나 의무감이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질 것 같기도 하고...(사례4)

(5) 정서적 어려움

본 연구에 참여한 가족 돌봄 청년(영 케어러, Young Carer)들은 자신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기꺼이 돌봄을 담당했지만, 이 상황이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사례4는 전업

주부와 같이 가사와 돌봄을 담당하는 생활이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병을 크게 만든 할머니와 간병인을 쓰지 않고 딸의 희생을 요구하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다. 자신의 고민은 동년배들의 고민과는 다른 사오십대 가정주부들이 겪는 고민과 같았다. 지금 하는 일이 자기 일이 아니라는 생각과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일이 미뤄지게 된 것이 스트레스가 되었다. 이런 자신의 고민을 의논한다는 것은 가족에 대한 험담이라고 생각되어 누구에게도 말할 수도 없었다. 사례3은 고액과의 선생으로 꽤 수입이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쓸 시간과 돈이 없는 상황에 무기력해지고 우울감을 느끼게 되었다. 여유 있는 시간을 누리고 싶지만, 그 시간에 고생할 다른 가족을 생각하면 죄책감이 느껴져 잠시의 편안함도 누리기 어렵다. 이처럼 영 케어러들은 원망, 스트레스, 무기력, 우울, 죄책감 등의 다양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였다.

원래 그 수술도 원래 저희가 말렸었거든요. 할머니 나이에 전신마취 위험하다 근데 할머니가 고집부려서 원래 허리 아픈 거 그 나이에 당연한 거니까 그냥 시술로 연명하자 그냥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빠도 할머니가 고집부려서 수술 하게 되고 결국 할머니의 그 고집으로 인해서 저희 모든 구성원의 삶에 약간 방해를 받게 된 거니까 할머니 탓을 많이 하면서 괜히 할머니가 밥을 안 먹는다 그러면 그거에도 화가 나더라고요. (중략) 아무튼 그래서 할머니에 대한 원망이 제일 컸었고 아빠에 대한 원망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나한테 시킨 아빠가 좀 툭 부러지게 간병인을 찾지 못하고 아빠 편하게 딸의 희생을 요구하는 게...(사례4)

사실 제가 이런 제 일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면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하면 제가 겪고 있는 일들이 친구들의 어머님들이 주로 겪고 있는 일이라 하고요. 거기서 약간 한 번씩 현타 같은 게 와가지고 이 상황을 바꾸려면 결국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50대 40~50대가 돼서 이 일들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마음의 여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약간 제 일이 아닌데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정작 저한테 중요한 일을 미루고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거기서 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좀 컸었어요.(사례4)

제가 한 번은 제가 성적을 진짜 잘 유지하다가 한 번은 번 아웃이 온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제가 너무 무기력해져서 회계사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 부분이기도 한데 1학년 2학기 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수업도 정말 듣기 싫고 과제도

너무 하기 싫고 그래서 진짜 억지로 꾸역꾸역했던 게 있는데 막 우울하기도 하고 힘들어서... 제가 돈을 번다고 해서 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뭔가 저를 위한 선물도 하고 싶고 나를 위한 그런 게 갖고 싶었는데 하나도 없으니까 뭔가 우울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시간을 쓸 때 뭔가 나를 위한 시간이 없다는 게 속상해 있어요.(사례3)

죄책감 없이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잠깐 나가서 커피 한잔 한다 해도 사실 간병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죄책감 가질 수 있는 시간이지 않아요. 약간 내가 이러는 동안 할머니는 화장실도 못 가고 있겠지 뭐 아니면 내가 이러는 동안 아빠가 빨래하고 있겠지 뭐 이러면서 죄책감이 드는데 그게 오히려 효율을 너무 낮추는 일인 것 같아서...(사례4)

또래의 삶과 다르다는 점은 영 케어러들이 위축감을 느끼게 하였다.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와 불안한 가정환경, 경제적 어려움, 자신을 위한 삶이 멈춰졌다는 생각 등은 알 수 없는 위축감을 만들었다. 사례4는 청년기의 꽃은 사회활동과 자기계발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여성의 경우 결혼 후에는 출산과 육아로 커리어나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 포기해야 할 부분이 발생하므로 청년기에 많은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누리는 것을 자신은 누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위축감을 느끼게 되었다. 사례5의 대학교 친구들은 비교적 부유한 학생들이 많아 가족들과 함께 주기적으로 해외여행을 가고, 몇 년씩 공부만 해야 하는 공무원 시험, CPA, Law School 등을 준비한다. 부모의 지원이 없으면 준비가 불가능한 공부를 하는 친구들과 동생들을 돌보며 독학으로 취업 준비를 하는 자신의 처지가 다르다는 것에 위축감을 느낀다.

약간 반반인데 어렸을 때 아빠가 술을 많이 드셔서 주사가 심하고 경찰들도 많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누가 집에 오는 게 약간 트라우마로 생긴 것 같아요 (눈물),(사례1)

힘들었던 기억은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던 건 아닌데 새로운 알바를 구할 때마다 뭔가 되게 위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주변 사람들이 나 사장님이나 직원들이 저한테 말을 걸어주면 저도 같이 얘기하고 말을 잘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되게 어디 좀 작게 얘기하고 소심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뭔가 그게 되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다른 사람들한테.(사례1)

나중에 정말 결혼을 하고 제가 출산하고 육아를 하면 많이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0, 30대의 꽃은 자기계발과 소셜활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못한다는 점에서 아쉬워요. 어떻게 보면 제 친구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누리고 있는 것들인데 저는 못 누린다는 점에서 괜히 위축되고, 사실(친구들이) 부럽기도 하고요.(사례4)

다른 애들은 좀 뭐라 해야 되지? 이쪽 동네 사는 애들보다 애들에 비해서 돈도 좀 많고 여유롭고 좀 해외여행도 가고 싶으면 막 가고 있으면 다 막 하고 그래서 공무원 시험이나 CPA나 로스쿨이나 제 주변에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조금 제가 절대 불행한 얘기를 못 꺼내죠. (중략) (친구가 해외여행 가서 불편한 방 배정 같은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냥 여행을 자체를 가지도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그랬구나 하고 그냥 넘기죠.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면) 사회 부적응자 같잖아요. 그냥 겉으로는 완전 슬펐겠다. 이려고 그냥 속으로는 씹욕을 하죠.(사례5)

5) 가족 돌봄 청년(영 케어러, Young Carer)의 평범한 일상을 위한 바람

(1) 청년기의 발달과업을 위한 시간과 공간

본 연구에 참여한 가족 돌봄 청년(영 케어러, Young Carer)들은 다른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누리는 평범한 일상을 원했다. 자신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 자기계발에 힘쓰고 사랑과 우정을 쌓아가며 사회적 관계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평범한 청년들의 삶을 기대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영 케어러들은 가사, 돌봄, 직장 근무 등에 매여 친구들과 만나거나 여행을 통해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부족하다. 돌봄 대상자와 밀착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영 케어러들은 혼자만의 휴식이나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없었다. 자신의 삶에 집중하여 직업 능력을 키우고 활발한 사회활동을 쌓아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가족 돌봄의 의무를 앞당겨 경험하고 있어 청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을 놓치고 있었다.

근데 보통 직장인 친구들은 평일 저녁에 만나는 걸 선호하는데 제가 그런 점에서도 (할머니 저녁 돌봄을 해야 해서) 모임을 못 나가고 있어요. 만약에 가족의 의무가 많이 줄어든다면 좀 소셜에 힘을 좀 쓰고 또 운동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제가 운동하는 것도 원래 되게 좋아하는데 자꾸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그냥 자기계발에 힘을 많이 쏟을 것 같아요. 소셜과 자기계발.(사례4)

저는 사실 할머니가 좀 케어받는 것만으로도 저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저를 위해서는 좀 할머니랑 어느 정도 따로 지낼 수 있는 공간 분리라던가...)(사례3)

전 좀 놀고 싶어요. 그러니까 약속 같은 거 저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저는 이미 가정이 있는 애 엄마 같은 느낌이어서 하루를 찌는 데 있어서도 너무 고려할 사항이 너무 많아요. 이때는 집에 이때쯤이면 아빠가 왔으려나 이때쯤이면 할머니가 배고프려나 하면서, 그냥 온전히 시간이 만약에 온전히 저만을 위한 시간이 한 3시간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사례4)

무조건 늦잠 자고 싶어요. 늦잠 자고 이제 시간 되면 애들이랑 놀고 싶고 또 이제 저녁에 시간 되면 또 술 한잔... 그런 부분들 되게 소소한 거를 즐기고 싶는데 그런 거를 즐기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죠.(사례2)

(2) 돌봄 부담의 나눔

가족 돌봄 청년(영 케어러, Young Carer)들은 돌봄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이나 학업을 병행해야 하므로 자신의 역할을 대신해줄 사람의 손길이 없다면 자신의 삶을 포기하거나 극단적으로 돌봄을 포기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영 케어러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도망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애정과 연민,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에 대한 보답 등 자신의 돌봄 행위에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며 기꺼이 돌봄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돌봄의 짐을 조금만 나눌 수 있다면 영 케어러들은 자신의 삶과 가족 돌봄을 함께 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례2는 대학 생활을 하고 싶지만, 장학금을 받더라도 돌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학교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신질환자인 엄마를 위해 휴먼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스템이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 몸이 아파 더욱 까칠해진 환자를 잘 케어할 수 있는 역량 있고 유능한 요양보호사,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자, 병원 동행서비스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매스컴을 통해 받은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사회복지서비스는 빈곤계층이 받는 수혜라는 선입견이 있어 지원받기를 꺼려하는 사례도 있었다. 정부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인식개선도 가족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집에 계시게 하려면 요양보호사분들이 오셔야 하는데 근데 그분들이 저희 할머니가 성격이 되게 깔끔하게 잔소리도 많고 이러거든요. 옛날에 하루에 한 4시간씩 오시는 분이 계셨었는데 못하겠다고 하고 가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도움받기가 좀 어려워서 성격이 되게 막 소리도 지르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주실 분이 많이 없으셔서 그런 쪽으로도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사례1)

저는 만약에 저같이 이제 부모님이 혼자이시거나 아니면 저 혼자 이제 돌봐야 하는 시스템이 만약에 있다면 집에 누군가 와서 저 없는 시간 동안 같이 돌봐 주고 어떻게 뭐 약 먹어야 될 시간이고 그런 거 알려주거나 아니면 같이 놀아 주거나 해주는 그런 게 있으면 솔직히 저는 좋겠다 생각을 하긴 해요.(사례2)

저는 진짜 정말 원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할머니가 서울 집을 너무 불편해하세요. 아무래도 본인 집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OO에서 이렇게 병원도 근처에 있던 말이에요. 근데 병원에 모셔갈 분도 없고 또 방문해서 케어해주시는 분이 없어요. 그거 두 개가 이루어지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사례3)

왜 노인들을 위한 거 말고 왜 아이들 돌봄 서비스에서도 왜 조선족들의 범죄가 일어나고 아이들이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이 그냥 문득 들었던 게 아빠 역시도 만약에 저희가 이런 제도가 있어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을 뭘 믿고를 제일 먼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집안에 뭐가 도난될 수도 있는 거고 할머니가 아무도 없는데 할머니가 오면 범죄로 일어날 수도 있다 해서 안전성에 대한 홍보도 필요한 것 같아요.(사례4)

지금 저는 장기요양 제도 그걸 들었을 때 저는 젊은 저도 그건 뭔가 쪽박촌의 독거노인 분들을 위한 제도 같고 그래서 일단 그 제도를 이용하는 것조차 어떻게 보면 저희 아빠 입장에서는 좀 자존심 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략) 제가 제도를 잘 몰라서 하는 걸 수도 있지만 보통 이런 지원 정책들 같은 걸 보면 기준이 항상 소득 분위 기준이잖아요. 아무래도 가족 돌봄을 받는 그 노인들은 소득 분위 면에서는 당연히 다른 가족들이 수입이 있기 때문에 밀려날 것 같은데... (일단) 일단 가족 소득 분위기를 두는 것 자체가 일단 가족들이 자신의 생활에 돌봄까지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거를 보는 거잖아요. 가족들의 희생 없이 제도를 공평하게 지원을 할 거면 그 기준이 좋을 것 같아요.(사례4)

(3) 의료서비스의 개선

사례3의 할머니는 첫 수술을 잘못 받아 병원에 대해 신뢰를 하지 않는다. 마땅한 병원을 찾지 못하다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다시 수술을 받았는데 수준 높은 병원이 서울에 밀집되어 지방에 거주하는 할머니가 서울에 올라와서 치료를 받게 된 것이다. 사례4의 할머니도 병원 내부사정으로 두 번의 수술 중 한 번만 시행하고 병원의 내부사정으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병원을 찾아갔지만, 의료 정보가 부족하여 적합한 병원을 찾지 못한 것이 병을 더 키웠다고 생각하였다. 더군다나 수술비와 입원비 중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 많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액수가 상당하여 경제적인 부담도 크다.

지방의 병원이 마땅치 않다는 거 보통 아프신 분들은 다 노령이신데 오히려 노령이신 분들도 수용할 만한 병원이 대도시 위주로만 있고 이제 시골에는 없잖아요. 그게 조금 그랬어요.(사례3)

OO병원에서 한 번 수술을 받았는데 거기서 수술을 잘못하셔서 그 이후로 좀 많이 아파하셨어요. 그러니까 수술 부위를 제대로 모르고, 그가 병명이 제대로 모른 상태로 그냥 깎다가 잘못 이렇게 되셨어요. 근데 그게 저희 할머니가 워낙 증상이 심하셔서 잘못되더라도 병원 측에서 책임을 지고 그럴 수가 없었거든요.(사례3)

그래서 진단체계에서부터 국가에서 특히 노인들을 위한 건강검진을 좀 체계적으로 진행해 주고 또 만약에 해야 된다면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되는지 정말 그런 병원이 그런 정보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어떤 병원에 어떤 전문의가 있고 그런 거를 저희가 일일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봐야 되는데 사실 의학 용어들이 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정보들을 봐도 비교하기가 쉽지 않고 결국에는 그냥 맘카페나 그런 데서 어느 분야나 어느 교수가 어느 의사가 유명하다라는 거를 토대로 찾고 찾고 찾고 해서 한 건데 그런 정보도 사실 신뢰 높은 정보는 아니잖아요...(사례4)

보험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척추에 시멘트 넣고 이러는 거는 보험 처리가 안 돼요. 저희 할머니가 보험이 거의 안 됐던 이유가 보험을 들려고 해도 아프시니까 보험사에서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의료 보험 하나만 적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일반 보험이나 이런 건 없는데...(사례3)

사례2의 거주지는 외곽 지역인데 대중교통 서비스가 좋지 않다. 이사를 가고 싶어도 낮은 환경과 낮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어려운 엄마 때문에 이사를 가지 못한다. 차도 없고 운전도 못하는데 엄마에게 위기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할지 걱정이다.

교통편도 솔직히 문제가 많긴 하죠. 저희 집 쪽이 아무래도 마을이고 촌구석이기는 했어도 이제 버스도 요즘에 많이 늘긴 했지만 근데 변화 같은 건 없어요. 똑같이 몇십 분, 1~2시간 기다려야 되는 건 기본이고 자차 있는 사람들은 좋겠죠. 근데 어떤 위급 상황에서 저도 저는 운전면허도 없고 엄마도 운전면허도 없는데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지만 지원해주는 곳이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사례2)

(4) 학업 및 취업 준비 지원

본 연구에 참여한 가족 돌봄 청년(영케어러, Young Carer)들은 자신의 취업 준비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지 못하였다. 가정의 실질적 가장과 돌봄의 역할로 사회초년생의 출발선이 뒷줄에 있게 되었다. 사례2는 자신에게 여유가 있다면 대학에 다니고 싶다고 했다. 친구들이 겪는 대학 과제의 어려움이나 자퇴 문제와 같은 고민도 대학에 가지 못한 영케어러에게는 부러움이 되었다. 사례1은 취업에 자신이 없어 도움받기를 원한다. 학교에서 배우기는 하였지만, 그 당시는 취업이 절실하지 않았고 많은 학생들이 개별적 지도를 받기는 어려운 구조였다. 영케어러들은 취업컨설팅, 모의 면접 또는 취업시험 준비에 필요한 어학원과 인터넷 강의 등과 같은 교육비를 지원받기 희망하였다.

만약에 저에게 아무것도 없고 돈만 주어진다면 그러면 저는 학교를 먼저 가보고 싶고 대학교에서 하는 강의 그리고 과제 친구들 팀플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은 게 꿈이에요. 다른 애들은 제 주변 애들은 다 학교 다니고 있고 학교 다니다가 자퇴하는 애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거 저만 못 해봤으니까 그런 거를 꼭 한번씩 해보고 싶긴 해요.(사례2)

그러니까 면접을 잘 준비할 수 있게 좀 도움도 받았으면 좋겠고 자기소개서나 이력서 같은 게 저는 또 처음은 아니지만 제가 쓴다고 해서 그게 완벽해지는 게 아니니까 누가 봐주면서 좀 수정할 부분도 얘기해 주고 어떤 식으로 쓰면 좋다고도 누가 알려줬으면 좋겠고 면접할 때 약간 면접 연습이 되게 중요하

다고 하더라고요. 면접 연습도 같이 해줄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쪽으로 도움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사례1)

지금 혼자 하고 있으니까 학원이나 과외 이런 걸 좀 구할 것 같아요. 스피킹은 확실히 그래도 사람이랑 해야 되는데 혼자 하니까 조금 잘 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중략) 프랑스어가 진짜 비싸고, 한 달에 일주일에 토요일만 가는 학원이 있어가지고 알리앙스나 이런 데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 가서 한 2~3시간 공부하는데 한 달에 20만 원 이 정도 내야 되고...(사례5)



04. 논의 및 결론

1_논의 및 결론

1) 주요 결과

본 연구는 “질병, 장애, 정신건강,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 구성원을 직접 돌보는 아동·청소년”인 “영 케어러(Young Carer) 또는 가족 돌봄 청년”(허민숙, 2022)에 대한 일상생활 연구이다. 청년 시기는 발달 주기상 자기계발과 독립 그리고 사회활동을 위한 자기 성장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오늘날은 과거보다 현격히 가사와 가족 돌봄에 대한 부담과 시간 사용은 줄어든 추세라 한다(김정은 외, 2019; 서지원 외, 2021). 그러나 우리 주변엔 미처 청년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겨를도 없는 청년의 버거운 삶의 단면과 돌봄이라는 한계에 직면한 이들도 있다. 이들의 24시간은 보통 꿈과 성장이라는 청년들의 소소한 일상과 달리 자신을 넘어 가족의 생계와 생존이라는 무거운 일상생활을 버티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국내 가족 돌봄 청년인 영 케어러에 대한 개념이나 연구가 미미한 상태로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 돌봄 청년(영 케어러, Young Carer)의 24시간 시간 사용을 통해 일상생활과 돌봄 경험을 살펴보고, 이들의 어려움과 필요는 어떠한지 탐색해보고자 했다. 이에 청년기본법에 근거하여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성인 또는 청년이 무보수로 가족 구성원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5명을 대상으로 1차 심층 면접과 일주일간의 24시간 사용일지를 작성 후 2차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개인의 상황과 맥락을 강조하여 사례별 독특성을 드러낸 사례 내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례1은 22세 여성으로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와 요양병원에 계신 조모의 돌봄 책임자이다. 사례1은 돌봄을 위한 의료비와 생계비 지원을 위하여 주 7일 매일 10시간

38분가량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를 하는 N잡러이다. 사례1은 가사는 하루 38분, 격주 조모 방문 시 2시간 30분 정도 사용하고, 수면시간과 씻기, 식사 등의 필수시간 약 8시간을 제외하면 24시간 중 일과 일을 하기 위한 이동시간으로 13시간 42분 사용함으로 하루 24시간 중 약 80%의 시간을 경제적 벌이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사례1은 전문학사 과정 대학생으로 자신의 전공 공부를 통해 전문 분야 직업을 갖고 싶으나 당장 필요한 돈을 메꿔야 하므로 학교 출석을 못 해 중단 위기에 있다. 팍팍한 알바 인생이라고 하지만 돌봄을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과 책임감이 강하다. 사례1은 아버지 생계와 할머니의 요양비를 매달 제공해야 하는 경제적 도움이 가장 간절하게 요청되었고, 이 부분이 해결된다면 학교에 다니며 공부해서 원하는 정규직 직장을 다니길 희망한다.

사례2는 23세 여성으로 정신질환이 있는 어머니의 돌봄 책임자로 어릴 적부터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고등학교 때부터 취업을 위해 미용 고등학교를 선택했고 졸업하자마자 가정의 경제적 책임자로 취업전선에 뛰어들었다. 주말을 포함한 5일간 미용 업무를 하되 4대 보험이 보장되지 않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식사시간이나 근로자의 합리적 처우를 기대할 수 없는 환경에서 근로 및 이동시간으로 13시간 10분을 사용하며, 가사와 병원 동행 돌봄에 주중과 주말에 1시간 20분~4시간 30분 정도 사용하고 있다. 수면 및 일상 유지 등의 필수시간인 7시간 30분을 제외하면 하루 시간의 75%의 시간을 경제적 벌이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사례2는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머니에 대하여 애정과 자신에게 고통을 강화하는 불편한 존재로 여겨 애증의 양가감정이 있고, 자신이 아니면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어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책임감으로 비혼주의를 선택했다. 사례2는 동년배 친구들과 같이 대학 생활을 하고 싶고 진로를 위한 체계적 도움이 필요함을 토로했다. 만약 대학교에 다니지 못하더라도 주중과 주말이 구분되고 식사시간과 근로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한다. 특히,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에 처한 어머니가 낙인감 없고 쉽게 이용 가능한 정신질환 관련 돌봄 체계가 마련되길 원했다.

사례3은 23세 여성으로 의료기술이 뛰어난 수도권 병원만 이용 가능한 특수 질병 환자인 외조모의 돌봄 책임자이다. 사례3은 공부를 잘해 지방에서 서울로 대학교에 입학해 생활하던 중 외할머니 병세는 의술력이 발달한 서울 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나 가정과 친인척들의 불화로 할머니를 돌볼 어른이 존재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경제적 무능과 오랜 기간 어머니 혼자 고군분투하며 생계와 외할머니 병원비 감당하는 게 안쓰러워 스스로 고액과의 아르바이트로 외할머니 병원비를 보조하고 있다.

또한, 외할머니를 지방과 서울로 이동하며 간호할 사람이 없어 공간이 분리되지 않은 자취방에서 조모의 가사수발과 간병, 일상돌봄을 책임지고 있다. 사례3은 공부시간 6시간 30분, 가사와 돌봄 5시간 42분, 과외 시간 1시간 50분을 사용하고 있으며, 수면 및 필수시간 7시간 59분을 사용하고 있다. 사례3은 본인의 대학 생활 가운데 할머니의 가사수발과 돌봄을 위하여 학교 수업과 과외 및 외부 활동을 모두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24시간 대부분을 할머니와 함께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코로나 기간으로 비대면이 활성화되었기에 가능했으나 향후 대면 활동이 본격화되면 돌봄 공백에 문제가 있을 것을 예상한다. 사례3은 외할머니의 일상 가사수발과 돌봄을 보조해 줄 일손의 필요와 공간 분리를 통한 자신만의 청춘의 삶을 추구할 수 있길 기대한다.

사례4는 29세 여성으로 자신의 학업과 일상 활동을 전반적으로 접고 간병인처럼 1년 동안 병원에서 할머니를 돌보았고, 현재는 집에서 가사와 기초적 돌봄을 하고 있다. 사례4는 폭풍 같았던 간병 1년을 기억하면 청년으로서 뒤처지고 죽은 시간으로 회고한다. 그러나 일찍이 부모의 이혼으로 엄마와 같았던 할머니에게 자신이 할 수 있었던 마지막 효심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다행히 할머니의 병세가 조금 호전이 되어 집에서 돌봄이 가능해졌고 아버지와 언니가 가사 및 간병을 분담하게 되어 현재는 자신을 위한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주 4일 가사 활동과 간병의 주 책임자로 하루 7시간 40분을 식사 준비, 청소, 빨래 및 할머니 수발 등으로 보내고 있으며, 수면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시간의 절반 이상을 집안일 하는 데 소비하고 있다. 집안의 막내지만 할머니에 대한 애정과 아버지의 강요와 부탁으로 자신의 일상을 포기하고서라도 간병과 가사 돌봄에 최전선에 뛰어들었다. 사례4는 만약 간병이 기한 없는 오래 지속되는 일이었다면 자신도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나, 1년이라는 시간 제한이 그나마 돌봄을 유지하고 참을 수 있었던 계기라 했다. 사례4의 바람은 자신의 시간과 일정을 자신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온전히 자신을 위한 선택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길 기대했다. 지금까지는 할머니 상황과 환경에 제약을 받고 아버지의 강권으로 가족을 배려하는 선택을 했다면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는 시간 선택과 다른 동년배들과 같이 많은 소셜 활동을 할 수 있길 기대했다. 더불어 할머니를 위해서는 의료와 돌봄 시스템의 유기적 활용과 장기요양기관이나 공적 돌봄 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긍정적 언론 홍보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사례5는 25세 여성으로 무관심한 아버지와 정신질환으로 방임하는 어머니, 동생 3명과 살고 있다. 가족의 불화는 동생들을 방임과 거리로 내몰았고 고등학생 동생 한 명은 성

범죄 피해로 정신과 치료를 위해 가족들과 함께 살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 부모의 절대적 돌봄이 필요한 동생들을 방치하는 부모 대신 자신을 동생들의 돌봄 책임자로 자처하였다. 특히 손이 많이 가는 초등학생 막내의 식사와 학교 등·하원, 공부, 놀이 등 모든 책임의 보호자인 동시에 기본적 생활비, 자신의 학비, 동생들의 학원비나 소소한 비용들을 위해 재택근무가 가능한 회사업무와 학원 강사 아르바이트로 경제적 책임도 지고 있다. 하루 24시간 중 아르바이트로 경제적 돌봄을 하는 시간은 5시간 17분, 가사와 돌봄 활동을 5시간 25분, 총 10시간 42분 정도 사용하고 있으며, 수면시간 등 필수 시간 7시간을 제외하면 보통 60% 이상 돌봄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사례5는 부모를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 부모가 책임져야 할 동생들이 귀찮고 불편한 존재라고도 생각도 하지만, 자신이 돌보지 않으면 다른 피해와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커 동생들을 돌볼 마지막 남은 사람이 자신이라는 생각해 돌봄을 자처하며 견디고 있다. 사례5의 바람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기계발에 성공해 취업을 잘하고 싶어 한다. 또한, 경제적 조건이 되면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가보고 싶고, 혹 일상에서 경제적 도움이나 후원을 받을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구청에서 제안한 가족 상담도 충실히 받아 기록을 남겨두고 있다.

사례 간 분석에서는 다섯 사례에서 발견된 공통점을 추출하여 90개의 의미 단위, 20개의 하위요소, 5개의 구성요소로 분석하였다. 최종 분석된 구성요소는 ‘영 케어러가 된 상황’, ‘다양한 돌봄 역할’, ‘동년배 청년과 다른 영 케어러의 일상’, ‘영 케어러가 당면한 어려움’, ‘영 케어러의 평범한 일상을 위한 바람’이다. 편의성과 가독성을 위하여 도출된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연구 문제와 연계하여 연구결과를 요약하고자 한다.

첫 번째, 가족 돌봄 청년(영 케어러, Young Carer)이 된 배경과 상황은 어떠한가?라는 연구 질문에는 최종 분석된 구성요소의 ‘영 케어러가 된 상황’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참여자들이 영 케어러가 된 상황으로 이들은 보통 가족갈등이나 불화, 가족 구성원의 정신질환, 신체적 질병, 알코올 문제 등 가족 구성원의 기능적 문제가 있었다. 또한, 가족 구성원의 사망이나 실직 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신이 경제적 돌봄 주 책임자가 될 수밖에 없거나, 현존하는 돌봄 서비스의 부정적 인식이나 실제적 가사, 간병 등의 돌봄 역할을 할 사람의 부재로 가사, 간병 노동의 주 책임자로서 영 케어러가 되었다.

두 번째, 가족 돌봄 청년(영 케어러, Young Carer)의 돌봄 경험과 시간 사용에 따른 일상생활은 어떠한가?에 대한 연구 질문에는 최종분석 구성요소의 ‘다양한 돌봄 역할’, ‘동년배 청년과 다른 영 케어러의 일상’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영 케어러들의 일상생활의 대부분은 돌봄으로 이뤄졌는데, 특히 직접적 돌봄 행위와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제적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다양한 돌봄 역할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간병과 병원 진료, 기저귀 케어, 진통 주사 놓기와 약 챙기기 등의 간병과 돌봄 대상자의 활동을 보조 역할을 하였다. 더불어 식사 준비, 빨래, 청소, 잔심부름, 등하교 등 가사와 양육의 역할을 도맡아 하고 있었다. 또한, 가족의 생계를 위한 생활비 마련과 병원비, 학업 등을 위한 경제적 지원자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영 케어러들의 시간 사용과 일상생활은 동년배 청년들과 다소 괴리감이 있는 시간 사용과 일상 활동으로 개인적·사회적 차이를 경험하고 있었고 사례별 생활시간을 아래 [표 1]에 제시하였다. 특히, 경제적 주 책임자나 보조자로서 근로 또는 아르바이트 등의 경제적 활동 소요 시간이 높았다. 사례에 따라 편차가 있으나 일일 5시간 이상~12시간 이하의 시간을 경제적 활동과 이를 위한 이동시간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이들은 간병, 가사, 보육의 노동 시간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경제적 돌봄이 주 활동이 되는 이들은 가사노동은 일일 1~2시간으로 제한되지만, 간병 가사 보육의 실제적 돌봄 행위 주체 활동인 영 케어러들은 일일 4~7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수면과 씻기, 식사, 준비 등의 필수시간은 보통 7~10시간으로 수면 및 필수시간을 제외하면 개별과 편차는 있으나 영 케어러들의 24시간 중 약 80~95% 이상 일과 돌봄 및 가사노동으로 일상을 보내는 것으로 확인된다. 3명의 영 케어러들은 대학 재학 중이거나 학업 준비를 위하여 공부로 2~5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었고, 개인의 휴식시간으로 핸드폰이나 주 1회가량 친구를 만나거나 외출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 케어러들의 상황과 시간 사용의 결과로 보통 일과 아르바이트는 열악한 근로 환경의 프리랜서, 전공과 상관없이 시급을 높이 주는 아르바이트나 투잡, N잡 활동, 돌봄과 일이 가능한 재택활동을 선택하고 있었고, 이러한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학업을 포기하거나,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수업을 선택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동년배들과 다르게 돌봄 시간은 많고 학업과 개인 시간이 부족하여 정서적 고립뿐 아니라 돌봄 때문에 활동에 제약을 받고 외출이 쉽지 않아 사회적 교류가 끊기는 게 일상이었다.

[표 9] 사례별 생활시간

내용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5
		근로(5일)	휴일(2일)		근로(3일)	휴일(4일)	
일 아르바이트	10:38	10:40	-	1:50	8:00	-	5:17
이동시간	3:04	2:30	1:30	2:00(1주)	2:30	1:20	1:08
가사돌봄	0:34	1:20	1:30	5:42	2:30	7:40	5:25
수면시간	6:51	6:30	11:30	4:38	8:00	8:00	7:04
필수시간 (씻기, 식사, 준비 등)	1:47	1:00	1:30	3:21	2:00	2:00	2:56
핸드폰	0:30	2:00	2:00	-	-	-	-
병원 방문	2:30(2주)	-	3:00(1주)	-	-	-	-
여가 (친구, 외출, 서포터즈 등)	1:30(1주)	-	3:00(1주)	1:45	1:00	-	-
공부시간	-	-	-	6:30	-	5:00	2:08

세 번째, 가족 돌봄 청년(영 케어러, Young Carer)의 당면 어려움과 필요는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 질문에는 최종분석 구성요소의 ‘영 케어러가 당면한 어려움’, ‘영 케어러의 평범한 일상을 위한 바람’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영 케어러들이 당면한 어려움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취업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정서적 어려움, 언제까지 지속할지 모르는 돌봄이라는 굴레에 대한 부담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어려움에서 영 케어러 스스로가 말한 평범한 일상으로 회귀는 청년기 발달과업을 위한 개인의 시간과 공간이 확보되는 것을 우선순위로 설명하였다. 더하여 돌봄의 무게를 나눌 수 있는 경제적 지원, 인력과 서비스, 기관을 통해 돌봄의 부담이 분산되며, 특히 의료적 서비스가 개선되는 것을 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 청년으로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학업과 취업 지원 및 정서적 지지와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길 기대했다.

[표 10] 사례별 서비스 지원 욕구

	경제	의료	돌봄 및 복지	교육 및 취업	정서
사례1	생활비, 주거비 대학학비보조	알코올 중독치료	방문요양사	취업컨설팅	
사례2	수급자격 유지, 생활비	정신건강 치료	정신건강기관 서비스 AI 홈케어	대학 진학 취업컨설팅	
사례3	의료비	의료접근성	병원 동행, 방문요양사		
사례4		체계적 의료정보	병원 동행, 방문요양사&간병		심리상담 소셜활동 지원
사례5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정신건강 치료	초등 등하원 동행 초등교육서비스	취업 준비	심리상담 문화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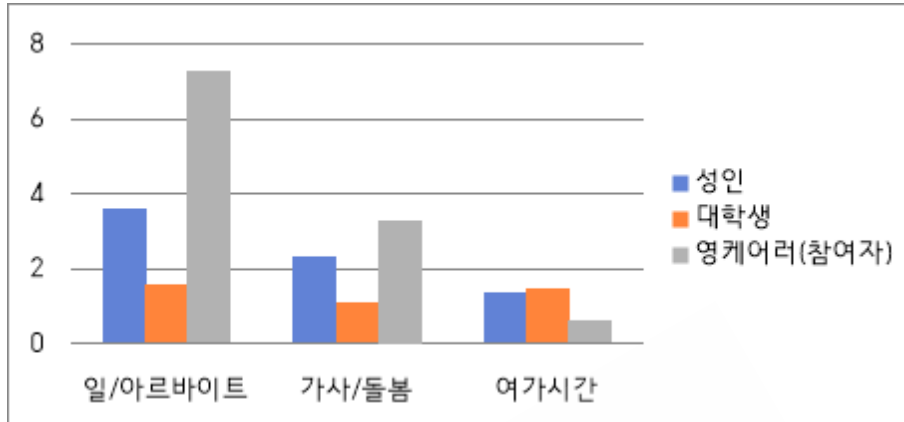
2) 논의 및 정책제언

20세 이상의 가족 돌봄 청년들은 24시간 시간 활용에 있어 다른 사람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시간 활용에 대한 선택과 결정권을 갖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더불어 개인을 보호하고 표현할 수 있는 개별적 공간 활용에 대한 소망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바로 옆에 있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뒤로한 채 자신의 안위나 성공만을 생각하지는 않았다. 이들은 가족에 대한 애정으로 돌봄의 무게들을 함께 짊어지고자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역부족인 것으로 보였다. 이들의 일상시간과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하고자 하는 소망이 언뜻 소소해 보이나 가족 돌봄 청년 개인의 자기다움과 자기 결정, 선택들을 보호받고 표현하며 창출하는 것은 분명 개인을 넘어 돌봄 사회화의 시스템이 다양한 형태로 작동되어야만 누릴 수 있는 매우 본질적인 문제인 것이다.

모든 사람은 일정 시점에서 타인으로부터 돌봄이 필요하다.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좋은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 더하여 모든 사람이 유의미한 돌봄 관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즉, 돌봄을 받을 권리를 넘어 돌볼 권리도 보장받아야 한다. 모든 사람의 삶에 필수적인 돌봄이라는 요소를 각 가정의 개인의 책임에만 맡겨 둔다면 여타 교육이나 의료가 평등하게 분배된다고 하더라도 ‘돌봄의 격차’로 불평등한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이정희 외, 2021). 돌봄의 격차가 불평등한 현실을 만든다면 누가 가족이나 타인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선택하기 쉽겠는가? 돌봄의 좋은 가치들이 선순환되도록 특히,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가족을 위한 돌봄 때문에 자신의 오늘과 미래가 담보된다는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돌봄 친화적 정책과 담론들이 현실화되길 기대한다.

[표 11] 성인, 대학생, 영 케어러 일상생활 시간 단순비교



본 연구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몇 가지 구체적인 제언을 하고자 한다. 상기 [표 11]은 2019년 생활시간 조사(통계청, 2020), 송혜림 외(2018), 김형주(2021)의 자료와 본 연구의 사례들의 평일 및 주말 중 많이 사용한 시간을 취합하여 평균화한 값으로 각 사례의 시간 활용을 단순 합산 및 평균 비교하는 것으로 해석에 제한이 있으나 시각화와 편의를 위하여 작성한 자료임을 밝힌다.

첫 번째, 가족 돌봄 청년들은 개별 편차는 있으나 5시간~12시간 정도 일과 아르바이트에 가장 많은 생활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통계청(2020)의 2019년 생활시간 조사에 19세 이상 성인 평균 3시간 32분, 대학생의 경우 1시간 31분을 일과 구직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영 케어러들은 성인기준 1.5~4배, 대학생 기준 5~10배 이상으로 경제적 일을 감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병재, 김성아, 이태진(2022)의 연구에 따르면 청년들은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지 않고, 스트레스와 고통을 많이 경험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일을 위한 출근퇴근과 이동시간, 몸단장을 하는 일련의 일과 연계된 활동 자체가 피곤한 활동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본 연구에 참여한 영 케어러들을 약 1.5~10배나 강도 높은 경제적 소득을 위한 일을 하는 것으로 그들의 고통과 불만족은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영 케어러들의 업무가 보통 비정규직이거나 단순 알바에 한정되어 있고,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느라 전공이나 숙련을 위한 업무가

아닌 당장 시급이 높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단순 업무로 투잡, N잡 활동을 하여 매달 필요한 돈을 버는데 급급한 상황이었다. 사실 이들도 장기적으로는 질 높은 안정된 정규직 직장을 선호하고 재취업하기를 바라나 미래를 위한 준비할 여력이 되지 않았다. 또한, 동년배들과 유사하게 학교를 다니고, 학업을 지속하고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고 싶으나 가정 형편도 어렵고 생활비를 당장 벌어야 하고, 돌봄 인력이 필요해 학업과 병행할 수 없어 중단하거나 애초에 시작하지 않은 실정이다. 결국, 이는 영 케어러들을 위한 경제적 보존이나 필요를 메꾸는 정책과 더불어 진로와 학업 준비를 병행할 수 있는 루트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현재 중앙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영 케어러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현황조사와 시범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국무조정실, 2022). 따라서 아직까지 국내 영 케어러를 위한 구체적 진행 결과가 공유된 상황은 아니나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 청년지원 활동 지원센터에서 생활 안정지원 사업 영 케어링 서비스를 시작하여 돌봄 지원금으로 생활위기 지원금인 생계비와 의료비, 자기 돌봄 지원비를 교육비와 심리·정서 지원비, 문화 지원비를 지급하는 사업이 시작되었다(<https://sygc.kr>). 국외 사례로 영국은 돌봄 수당(Carers Allowance), 돌봄 크레딧(Carers Credit), 돌봄 프리미엄(Carer Premium) 등 개인별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른 내용적 추가 수당들로 재정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김령희, 2021; 허민숙, 2022; National Health Service, 2021), 호주 경우 학비 보조프로그램(Young Carer Bursary Program)을 통해 가중치 기준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청년 수당(Youth Allowance), 돌봄 수당(Carer Allowance), 연금수급자 교육 보조금(Pensioner Education Supplement), 학비 보조금(Bursary) 등의 혜택과 돌봄 대상자의 질병 상태에 따라 돌봄 임금(Carer Payment)과 돌봄 수당(Carer Allowance)을 받을 수 있다(김령희, 2021; Young Carers Network, 2022).

이처럼 경제적 지원에 대한 다양한 수당과 보조금 형태가 체계적으로 개설되는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영 케어러의 돌봄 상황을 파악하여 기본 돌봄 수당과 학비 보조를 중심 축으로 두고, 돌봄 대상자의 질병 수준이나 돌봄자 인원수, 돌봄 시간 정도 등의 가중치를 설계해 구간별 수당 체계를 설립한다면 영 케어러 대상 특수 특성들까지 포괄하여 지원하는 시스템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 수급 조건이 소득 기준과 부양의무자 부양 능력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보통 청년의 경우 매달 필요한 소비성 가정 내 생계비를 책임지기 위해 아르바이트로 월

120~150만 원의 수입이 생긴다. 본 연구참여자 중에도 수입 발생으로 생계비를 제외한 (부양의무제 제외) 의료 주거 등의 기초생활 수급 지원이 중단될 염려로 국세청에 신고 되지 않는 방법을 찾거나 불합리적인 조건에 응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다. 차상위 계층이나 유사 구간인 경로는 아르바이트를 선택하면 힘들게 일하고 지원도 못 받기 때문에 부당한 근무 조건들을 수용해 일의 버거움과 돌봄의 버거움을 동시에 짊어지고 있었다. 가족 돌봄 청년 가구들이 기초생활 수급 조건과 맞물린 정책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가족 돌봄 청년의 특별지원방안들이 보완되거나 신설되는 것이 필요하겠다.

두 번째, 앞서 논의된 것처럼 가족 돌봄 청년들은 경제적 어려움 또는 경제적 활동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거나 애초 시작하지 못하는 예도 있었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불안과 빈곤, 돌봄의 악순환이 이어졌다. 이들도 동년배들과 같이 청년의 시기에 캠퍼스를 누비며 학업을 지속하길 원하고, 전문적이고 정규직의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고 있어 학업 지원과 취업 지원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학업 유지를 위한 학비 보조, 진로 탐색과 진로 체험 기회 제공, 실질적 면접과 자기소개서 첨삭 등을 위한 멘토링 운영, 영 케어러들을 위한 공공 근로 인턴제도, 취업 인센티브와 창업지원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세 번째, 대체로 본 연구에 참여한 영 케어러들은 부모세대를 돌보는 것을 넘어 세대 간 전이된 조부모의 돌봄, 동생을 양육하는 등의 다양한 형태의 돌봄을 담당하고 있었고, 가사, 간병(의료), 보육 등의 노동에 개별 편차가 있으나 4~7시간 정도의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2019년 생활시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남녀 가사 노동 시간은 평균 2시간 17분이며 5년 전보다 감소하는 추세로(통계청, 2020), 청년 1인 가구의 가사 노동 시간은 63.5분으로 약 1시간 정도 가사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혜림, 강은주, 김민주, 2018). 가사와 돌봄을 주 책임을 맡은 영 케어러들의 가사 노동 시간은 우리나라 성인의 가사 노동 시간보다 평균 2~3배, 청년과 비교하면 4~7배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보통 이러한 가사, 간병(의료), 보육 활동들은 일차적으로는 기존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돌봄의 공백들을 메우는 방법과 기존 서비스의 개선과 새로운 돌봄 체계 마련이 필요하겠다.

돌봄 대상자가 보통 노년기의 어르신들로 보통 의료적 서비스를 받은 후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로 연계가 되는데 이러한 과정 간 정보 공유와 유기적 연계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영 케어러가 홀로 간병을 전담해야 하는 경우 병원 내 간병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나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 장기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해 시간과 공간적 분리로 영 케어러 혼자 돌봄을 담당했던 한계가 분담되도록 적극적 정보와 현 지원제도를 연계하

는 것이 급선무이다. 더하여 가사와 간병에 대한 방문서비스 제도도 있어 이를 활용한다면 요양원이나 주간 보호센터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집에서 케어받을 수 있어 돌봄 대상자의 돌봄 공백이 예방되고 영 케어러들의 다양한 돌봄 분담으로 다른 시간 활용의 기회가 생긴다. 이러한 과정 중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임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의 부담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이를 보존해주거나,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 항목 진료가 필수인 대상자 경우 병원비를 보존할 수 있는 영역들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돌봄 인력 연계에 있어 요양보호사나 활동 지원사 제도 등의 인력과 지원체계를 정비하여 야간이나 새벽 파견 또는 온종일 24시간 파견 등의 방안을 강구해 다양한 시간대에 인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했던 영 케어러 중 근로시간에 수시로 돌봄 대상자의 안전이나 건강 체크를 위해 전화를 해야 했고, 이는 근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경험을 보고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AI 인식 시스템이나 CCTV, 케어 로봇 등이 제공되는 것도 돌봄 공백을 메우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육아와 양육을 담당해야 하는 영 케어러에게는 기존 아동보호와 복지를 담당하는 기관인 지역아동센터나 다 함께 돌봄센터, 아이돌보미 서비스 등의 연계로 보육과 복지, 학습 등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이 필요했다. 더하여 아동의 등·하원 공백이나 안전, 건강과 연계된 활동, 노인 및 아동의 병원 동행 등 보호자가 꼭 필요한 경우 동행 서비스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신청 시 등·하원 동행서비스나 병원 동행서비스 등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뿐 아니라 가족 돌봄 청년들이 초기 돌봄 때 기저귀 케어나 목욕, 옷 입히기, 휠체어 이용, 이동 지원, 미음 또는 죽 만들기 등의 요리, 소독 및 청소 등 가사 일의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하여 기초생활 돌봄 방법을 지도해주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 실습 방안이 제공되어야겠다.

기존 서비스와 연계하는 것과 현 돌봄 서비스의 개선과 신규 돌봄 방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부분은 영 케어러들이 기존 사회서비스가 존재해도 정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이용방법도 복잡하고 분절적으로 나뉘어 있어서 자신들과도 연계된 정책일 수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 앞서 중앙정부 차원의 현황조사 및 영 케어러를 위한 시범적 서비스 지원 외에도 서울시에서는 돌봄 SOS 센터를 운영하며 본인이나 가족의 돌봄에 대한 궁금증과 어려움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물

론 본 사업 대상이 만 50세 이상의 성인 및 전 연령의 장애인이 주요대상이나 영 케어러들의 정보 획득과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부분에 효과적 대응 지원이 되리라 생각된다. 이에 더하여 구체적으로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 용이성을 확대되도록 청년들을 위한 전담 창구와 서비스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국의 돌봄 다이렉트 헬프라인(Carers Direct Helpline) 운영 체계가 마련되어 있고, 호주는 Young Carers Network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허민숙, 2022). 이에 국내에서도 영 케어러들의 전담 창구와 정보제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의 개발도 필요하다.

네 번째, 상기에서 논의된 돌봄 서비스 이용에는 돌봄 대상자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질 높고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돌봄 인력의 전문화’와 ‘돌봄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 사회 인식 재고’가 필요하다. 가족 돌봄 청년들이 영 케어러가 되는 상황은 여전히 돌봄이 타인에게 맡겨질 경우 불효라고 느끼는 부정적 정서나, 언론을 통해 사회에 비친 돌봄 인력의 부당함, 정부의 돌봄 서비스가 하위 취약계층에게만 제공되는 지원이라는 선입견이 아직 팽배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해결방안은 돌봄 인력의 전문화로 믿을 수 있고 확실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보통 돌봄 노동자들은 고용이 불안정하고 저임금과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쉴 공간도 변변치 못하다(이정희 외, 2021). 그러다 보니 개인 노동의 평가절하가 돌봄 대상자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방지를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돌봄 기관의 관리 감독을 넘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돌봄 대상자와 정서적 연대가 있는 영 케어러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돌봄 인력으로 활동할 기회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더하여 사회에서 실시되는 돌봄 서비스와 영 케어러의 돌봄 상황에 대한 긍정적 사회 인식 확대를 위해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한 홍보와 행사들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 영 케어러들이 돌봄을 위한 경제활동과 가사, 간병(의료), 보육 등으로 많은 일상생활 시간을 사용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학업과 자기계발, 휴식시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청년들은 평일 기준 3.3시간 휴일 기준 5.3시간을 문화와 여가시간으로 보내고 있다(김형주, 2021). 정은희, 주은선(2020)에 따르면 청년 시기는 졸업, 취업, 결혼 등의 잦은 역할 변화가 있어 특유의 불안을 느끼는 동시에 미래를 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한 때라고 한다. 청년의 시간 사용 방식이 현재 삶과 미래의 성취,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최근 청년들은 시간 사용에 즐거움, 워라밸, 유연성 등을 가치 있게

생각한다. 이에 여가와 교제 시간이 매우 중요한데 본 연구참여자인 가족 돌봄 청년들과는 대비되는 시간 사용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절대적으로 자신이 돌봄의 최전선에서 가족을 케어함으로 본인이 아니면 돌봄 대상자가 기본적 식사나 간단한 간병 치료 등 일상생활이 불가하다고 여겨 친구를 만나거나 여가, 소셜 활동은 후 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장진희(2022)의 서울시 청년 여성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 부모나 친구와의 직간접 만남이나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친구 수가 증가할수록 일상생활의 불안감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보면 영 케어러의 시간 활용과 행동 패턴이 지속된다면 사람들로부터 단절과 외부 활동의 제약, 사회적 교류를 확연히 줄여 사회적 관계망이 협소화되고 결국 개인의 삶의 불안감 증가와 생활 만족이 떨어지고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해 영 케어러들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과 문화, 소셜 활동의 기회들을 제공하여야 한다. 현재 서서울생명의 전화에서는 청년 프로젝트로 영 케어러 바로서기 사업을 진행하여 심리상담지원과 단기 돌봄 서비스, 영 케어러 힐링 스쿨을 진행하고 있다 (<http://happyliife.or.kr>). 정부와 민간 영역의 협력으로 영 케어러가 당면한 다양한 스트레스와 정서적 불안에 대한 상담과 치료적 전문 기관연계와 영 케어러 자조 집단 구성을 통한 사회적 지지체계 마련도 요청된다. 더하여 가족 돌봄 청년들의 시간이나 행동반경이 근접 주거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높고 위축된 상황에서 외부 자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정서 지원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돌봄에 대한 본질적 고민과 대안들이 법적, 정책적, 실천적 궤를 꿰어 임시방편의 제도가 아닌 종합적이고 통합적 틀로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인간의 전 생애주기에 아동이나 노인 시기처럼 특별하게 타인 돌봄이 집중된 시기도 있고, 장애나 영 케어러처럼 개인적 특수 상황에 따라 개인 또는 타인 돌봄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즉, 인간은 누구나 돌봄이 필요하고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돌봄을 받는 것이 어렵거나, 미안하거나, 불편하고 수치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야 한다. 더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것도 개인적 생존과 일상을 위협하지 않고, 불안하고 죄송스러운 영역이 아닌 가치 있고 존중되는 활동으로 여겨져야 한다. 누구도 돌봄 공백으로 고통받지 않고, 경제적 조건과 상관없이 좋은 돌봄을 누릴 수 있으며, 일자리도 유지하고 학업이나 일상을 침해받지 않고, 가족에게 충분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돌봄이 더이상 사적이거나 민간 영역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국가 책임, 기본적 인간 존엄 실현의 영역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크게는 돌봄 기본법을 통해 생애주기별 돌봄정책과 대상별 돌봄

정책이 마련되고, 가족 돌봄 청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영 케어러 돌봄통합부서가 신설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영 케어러 돌봄 전략으로 앞서 논의된 경제적 지원, 기존 서비스 연계와 개선, 돌봄 인력 확대와 서비스 신설, 학업 및 진로 지원, 정서적 지원, 정보제공과 홍보 및 인식개선, 연구와 행정적 지원 등에 대하여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돌봄에 대한 영역과 청년정책 부서 간의 유기적 연계와 신설을 통해 보다 통합적인 돌봄의 궤를 엮어 영 케어러 정책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돌봄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 가족 연대에 대한 가치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가족을 돌보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가족과 자신에 대한 성숙의 기회, 긍정적 관점과 사회적 민감도가 발달하고 있음도 확인되었다. 돌봄 부담으로 가족이 갖는 중요 기능과 가치가 희석되지 않고 사회적 돌봄 시스템 강화와 개입으로 오히려 젊은 청년들이 가족 돌봄과 자신의 상생적 발달과 성장을 추구할 수 있길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소수의 여성 미혼 가족 돌봄 청년들의 사례만 한정적으로 살펴봤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남성과 기혼 청년들에 관한 연구도 추가로 필요하겠다. 일차적으로는 전국단위의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전반적 현황조사가 필요하며, 기존의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된 대표적인 집단으로 가족 돌봄 청년을 보호하고 돕기 위한 실천적 정책적 접근성은 어떠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을지 지속적인 후속연구가 요청된다.

참고문헌

- 국무조정실. (2022). 가족 돌봄 청년(영 케어러) 지원대책 수립 방안. 관계부처 합동.
- 권지성, 주소희. (2016). 일반 저소득 가구 부모의 관점에서 본 아동 청소년의 일상생활 패턴과 맥락 분석, *한국가족복지학회*, 21(3), 583-607.
- 김연정, 정선영. (2022). 가정위탁 아동의 자립준비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위탁, 연장위탁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6(1), 93-120.
- 김윤지, 김정섭. (2022). 대학생의 일상생활 탐색 및 일상생활 적응을 위한 사회적 문제해결 경험 분석. *교육문화연구*, 28(2), 563-582.
- 김인숙. (2016). 사회복지연구에서 질적 방법과 분석. 서울: 집문당.
- 김정은, 박정윤, 문익정. (2019). 청년기 발달과업 달성이 청년 웰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24(2), 171-193.
- 김향미. (2021). 22살 청년 '간병살인' 비극에... 정치권도 '영 케어러' 정책 마련 촉구. *경향신문*. Retrieved April 12, 2022, from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111071606001>
- 김형주. (2021). 청년 세대의 문화 및 여가생활 실태가 주는 시사점. *청소년문화포럼*,(), 197-204.
- 노혜진. (2017). 시간 빈곤과 시간 불평등의 의미와 실태. *월간 복지동향*, (225), 5-13.
- 박수미, 선보영, 김진옥. (2005). 한국 여성의 생활 세계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변금선, 이혜림. (2022).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특성 -2010년과 2019년 청년층의 빈곤 비교-. *사회복지정책*, 49(1), 87-119.
- 보건복지부. (2022). 가족을 돌보는 청년, 국가가 함께 돌보겠습니다.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70196
- 서대문구청 <https://www.sdm.go.kr>
- 서서울생명의전화 <http://happyliife.or.kr>
-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https://sygc.kr>

- 서지원, 기은광, 고선강. (2021). 한국 여성과 남성의 세대별 가사노동 시간의 변화(1999-2019): 가정관리 및 가족돌봄 시간을 중심으로.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5(2), 53-78.
- 송해림. (1993). 가사노동의 가치평가 : 서구 산업사회와 한국에 있어서 사회정치적 관점들.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233-241.
- 송해림, 강은주, 김민주. (2018). 청년 1인가구의 생활시간 사용 연구 - 성별 · 취업 여부에 따른 식사와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2(2), 45-63.
- 송해원, 이예진, 이은형, 최하영. (2021). 한부모가정 성인 자녀의 자립 과정과 노동시장 참여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가족복지학, 68(1), 103-146.
- 시바야 도모코. (2021). 영 케어러 돌봄을 짊어진 아동 청년의 현실, 서울: 황소걸음. 박소영 역.
- 양민아, 원경아 박지혁. (2020). 한국인의 연령별 및 지역별 생활시간 사용과 만족도. 한국노년학, 40(1), 23-32.
- 오만석. (2010). 한국 학생들의 생활시간 사용에 대한 비교 연구. 비교교육연구, 20(4), 299-330.
-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7).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중판). 서울: 박영사
- 이병재, 김성아, 이태진. (2022). 일상재구성법을 통해 살펴본 청년과 중장년의 일상생활과 행복.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2022(0), 395-416.
- 이수진, 정익중. (2020). 청소년의 일상생활과 행복 간의 관계: 빈곤과 비빈곤 청소년의 비교. 학교사회복지, 49, 175-200.
- 이자경, 장숙량. (2019). 공적돌봄 이용 여부에 따른 가족 간병자의 주관적 건강. 장기요양연구, 7(1), 54-71.
- 이정희, 김정엽, 신의철, 이주희, 조지훈. (2021). 좋은돌봄, 민중의 소리.
- 정은희, 주은선. (2020). 청년의 여가시간과 교제시간에 대한 영향요인 탐색 -청년 역할 유형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6), 623-639.
- 장진희. (2022).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의 일상생활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사회적 관계망과 주거특성을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14(1), 71-113.
- 채화영, 김주희, 이기영. (2011). 중·고령자의 생활시간 유형화 연구. 가족자원경영과 정책(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2), 129-146.
- 통계청. (2020). 2019년 생활시간 조사 보고서. 서울 : 통계청.
- 함선유. (2017). 비공식 돌봄과 시장 노동 참여: 일상생활 활동에 제약이 있는 가족에 대한 돌봄. 사회보장연구, 33(4), 295-321.
- 허민숙. (2022). 해외 영 케어러(young carer) 지원제도와 시사점: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및 고립 예방을 위한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분석, 242, 1-25.

- Bardasi, E., & Wodon, Q. (2006). Poverty Reduction from Full Employment: A Time Use Approach. In C. M. Blackden and Q. Wodon (ed.), *Gender, Time Use, and Poverty in Sub-Saharan Africa*, World Bank Working Paper, 119–134.
- Bonke, J., Deding, M. & Lausten, M. (2009). Time and money: A simultaneous analysis of men's and women's domain satisfaction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0, 113–131.
- Carer Gateway. (2022). Services and support. Retrieved August 23, 2022, from <https://www.carergateway.gov.au/about>
- Carers Australia. (2022). Young carers. Retrieved April 12, 2022, from <https://www.carersaustralia.com.au/about-carers/young-carers/>
- Creswell, J. W. (2015).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3rd eds.). 조흥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공역, 질적연구 방법론 다섯가지 접근(원서출판 2013). 서울:학지사.
- Csikszentmihalyi, M., & Larson, R. (1984). *Being adolescent*. Basic Books.
- Department of Education. (2014). *Young person's guide to children and families act 2014*. Retrieved August 23, 2022, from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young-persons-guide-to-the-children-and-families-act-2014>
- Fives, A., Kennan, D., Canavan, J., & Brady, B. (2013). Why we still need the term 'young carer': Findings from an exploratory study of young carers in Ireland. *Critical Social Work*, 14(1), 49–60.
- Gough, G., & Gulliford, A. (2020). Resilience amongst young carers: Investigating protective factors and benefit-finding as perceived by young carers. *Educational Psychology in Practice*, 36(2), 149–169.
- Hendricks, B. A., Kavanaugh, M. S., & Bakitas, M. A. (2021). How far have we come? An updated scoping review of young carers in the US.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38(5), 491–504.
- Heyman, A., & Heyman, B. (2013). 'The sooner you can change their life course the better': the time-framing of risks in relationship to being a young carer. *Health, Risk & Society*, 15(6–07), 561–579.
- Joseph, S., Sempik, J., Leu, A., & Becker, S. (2020). Young carers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An overview and critical perspective on possible future directions. *Adolescent Research Review*, 5, 77–89.
- Leu, A., & Becker, S. (2019). Young carers. In H. Montgomery (Ed.), *Oxford bibliographies in childhood stud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McDougall, E., O'Connor, M., & Howell, J. (2018). "Something that happens at home and stays at home": An exploration of the lived experience of young carers in Western Australia. *Health and Social Care*, 26(4), 572-580.
- Medforth, N. (2022). "Our unified voice to implement change and advance the view of young carers and young adult carers." An appreciative evaluation of the impact of a national young carer health champions programme. *Social Work in Public Health*, Advance online publication. <https://doi.org/10.1080/19371918.2022.2058673>
- National Health Services. (2021a). Being a young carer: Your rights. Retrieved August 23, 2022, from <https://www.nhs.uk/conditions/social-care-and-support-guide/support-and-benefits-for-carers/being-a-young-carer-your-rights/>
- National Health Services. (2021b). Benefits for carers. Retrieved August 23, 2022, <https://www.nhs.uk/conditions/social-care-and-support-guide/support-and-benefits-for-carers/benefits-for-carers/>
- Newman, K., Chalmers, H., Berardini, Y., Wang, A. Z. Y., Stamatopoulos, V., & Lewis, M. (2022). No young carer left behind: A two-phased study to understand and address the needs of young carers from rural and urban communities before and during COVID-19. *Canadian Journal of Family and Youth*, 14(1), 124-145.
- Robison, O. M. E. F., Inglis, G., & Egan, J. (2020). The health, well-being and future opportunities of young carers: a population approach. *Public Health*, 185, 139-143.
- Sempik, J., & Becker, S. (2014). Young adult carers and employment. Retrieved June 15, 2022, from <https://carers.org/resources/all-resources/46-young-adult-carers-and-employment>
- Shelton, B. A, John, D. (1996).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Annual Review of Sociology*, 22, 299-322.
- Smith, C., Blaxland, M., & Cass, B. (2011). 'So that's how I found out I was a young carer and that I actually had been a carer most of my life'. Identifying and supporting hidden young carers. *Journal of Youth Studies*, 14(2), 145-160.
- Stamatopoulos, V. (2016). Supporting young carers: A qualitative review of young carer services in Canada. *International Journal of Adolescence and Youth*, 21(2), 178-194.
- Telzer, E. H., & Fuligni, A. J. (2009). A longitudinal daily diary study of family assistance and academic achievement among adolescents from Mexican, Chinese, and European background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8, 560-571.

The Children's Society. (2022). Legislation, guidance and research. Retrieved August 23, 2022, from <https://www.childrenssociety.org.uk/information/professionals/young-carers/legislation-guidance-and-research>

Wepf, H., Joseph, S., & Leu, A. (2021). Benefit finding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young carer experiences and mental well-being. *Psychology & Health*. Advance online publication. <https://doi.org/10.1080/08870446.2021.1941961>

Young Carers Network. (2022). Financial support. Retrieved August 23, 2022, from <https://youngcarersnetwork.com.au/tips/financial-support/>



작은연구 좋은서울 2022-09

가족 돌봄 청년의 일상생활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발행인 박형수

발행일 2022년 12월 30일

발행처 서울연구원

비매품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이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